

한국교회 부흥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해서

-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목회와 전도전략

주후 2010년 8월 5일(목) 오전 10:30~오후 2:30

총신대학교 사당캠퍼스 제2종합관 카펠라홀

(02-3479-0200)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전도부

※ 본 자료는 총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총회전도정책포럼 순서

시 간	발 제 내 용	강 사
10:30~10:45	1부. 개회예배(전도부)	
	2부. 전도정책포럼	사회 : 국내전도국장 황윤수 목사
10:45~11:25	교회 부흥을 위한 전도	권성수 목사 대구동신교회 담임 총신목회신학전문대학원 교수
11:25~11:40	질 의 응 답	
11:40~12:30	참 교회의 본질 : 칼빈의 설교에 구현된 sola Scriptura 원리	문병호 교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12:30~12:45	질 의 응 답	
12:45~1:30	점 심 식 사	
1:30~2:10	구원의 확신을 주는 전도와 양육	진용식 목사 상록교회 담임 총회이단대책위 연구분과장
2:10~2:30	질의 응답 및 정리	

개 회 예 배

인 도 : 서기 이은철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498장 다 같 이
기 도 회계 김신원 목사
성경봉독 마 28:19~20 인 도 자
설 교 가서 제자 삼으라 부장 황재식 목사
축 도 총무 이석원 목사



■ 찬송가 498장(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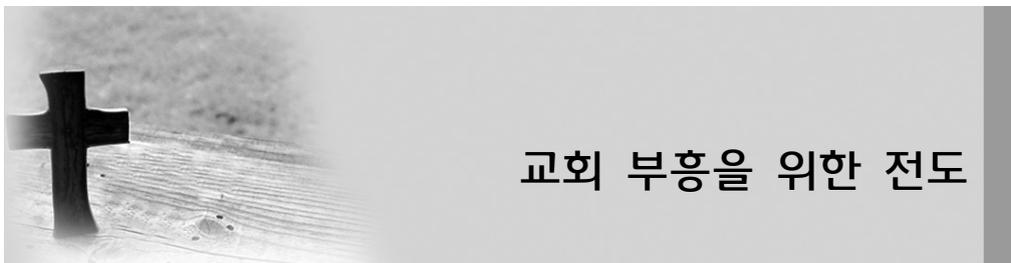
- | | |
|---------------------|----------------|
| 1.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
|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
| 2.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
|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
| 3.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
|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
- [후렴]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 성경본문 (마 28:19~20)

-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 교회 부흥을 위한 전도 권성수 목사	5
2. 참 교회의 본질 : 칼빈의 설교에 구현된 sola Scriptura 원리 문병호 교수	42
3. 구원의 확신을 주는 전도와 양육 진용식 목사	62



교회 부흥을 위한 전도

권성수 목사

대구동신교회 담임, 총신목회신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나라 기독교의 교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굳이 통계를 갖다 대지 않아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출석수가 줄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일부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현상이다. 성인 출석도 줄지만, 주일학교 학생 출석은 급속도로 줄고 있다. 일반학교의 학생수 감소, 놀토(노는 토요일) 문제, 주말 학원가기, 기독교에 대한 관심 저조 등의 문제로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 출석이 급감하는 현상은 가히 우리나라 교회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교세 약화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겠는가? 우리나라 교회들이 정체나 쇠퇴를 벗어나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길은 없겠는가?

기독교 교세 약화 문제를 다각도에서 다룰 수 있겠지만, 우선 ‘전도’ 면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일단 전도가 잘 되면 교회가 부흥할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세가 약화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다. 거의 모든 교회가 전도를 강조하고, 전도 교육과 전도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즈음은 전도가 안 된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왜 그럴까?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가 안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제대로 잘 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만들 수 있을까?

1. 불신자의 의식(반대)과 대처방법

우선 우리나라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불신자들은 대체적으로 “기독교는 가정과 사회를 무시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불신자들의

반(反)기독교 의식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무시한다는 의식

나는 대구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대구에서 전도를 해 보면 “난 불교입니다.”고 하면서 아예 말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이 불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난 불교 신잔데, 왜 당신이 내게 기독교를 강요하려고 하느냐? 기독교인들은 기독교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종교는 무조건 무시해 버리는 것이 아니냐?”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교나 타종교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타종교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타(他)종교인들을 사랑한다. 우리는 타종교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갈망한다. 우리는 전도할 때, 소극적으로 타종교를 무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한다.

타종교인들이 기독교가 타종교를 무시한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믿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직, 간접적으로 들어 알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전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타종교나 타종교인들을 무시하거나 혐오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만 사랑으로 그들에게 바른 길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 뿐이다.

우리는 타종교를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타종교인들과 맞붙어 싸울 필요가 없다. 타종교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할 필요도 없다. 물론 기독교와 타종교를 비교하는 연구와 그런 연구의 발표와 교육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전도할 때 굳이 타종교를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타종교를 비판해야 할 경우에는 비판해야 하겠지만, 타종교를 비판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렇게 좋더라.’는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된다.

2) 부모를 무시한다는 의식

기독교인들이 조상 제사를 반대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식이 불신자들 속에 들어 있다. 유교에 젖어 있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예수님을 믿으면 조상 제사를 지내지 못한다는 것 같다.

사실 기독교는 조상을 무시하지 않고 부모와 조부모를 공경하게 한다. 하나님은 주신 10계명 중에 대인관계의 첫 계명이 부모공경 계명이다. 우리는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살아 계신 부모를 잘 섬기도록 독려하고,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조상 제사를 반대하는 것은 사실이다.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다. 조상 숭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조상들을 추모하는 것이라고 아무리 변명을 해도 조상 숭배는 우상 숭배의 죄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반대한다. 그러나 조상 제사 대신에 추모 예배를 드림으로써 조상에 대한 추모를 하게 한다. 기독교는 조상을 무시한다는 것은 오해에 불과하다.

3) 술 담배를 못하게 한다는 의식

기독교는 술 담배를 못하게 한다는 의식은 예수님을 믿으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의식과 맞물려 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술도 마셔야 하고 담배도 피워야 하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술 담배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예수님 영접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예수님을 믿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술 담배를 끊으면 된다고 하면 된다. 술 담배로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하면 된다.

4) 교회 나가도 별 수 없다는 의식

불신자들을 신자들을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간혹 불신자보다 더 못한 신자도 있다. 불신자들은 착한 신자들을 거의 보지 않고 나쁜 신자들만 눈여겨보고 비난한다.

기독교 신자들의 윤리 문제는 사실 전도의 가장 큰 방해물 중의 하나이다. 신자의 비(非)윤리가 신자가 믿는다는 신앙의 효력을 의심하게 한다. 신자의 비윤리가 불신자로 하여금 예수님도 별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썩은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한다. 올바른 생활을 통한 전도가 매우 효과적인 전도이다.

5) 시간이 없다는 의식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교회 나가느냐?’고 한다. 그들은 물론 교회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말을 하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생과 내세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그런 말을 할 것이다. 현세도 살기 힘든데 죽어서 가는 내세는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대체적인 관심은 그저 현세에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자식들이 잘 되면 된다는 것이다. 죽으면 그만이지, 천당이니 지옥이니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내세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현세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리라는 말을 해 주어야 한다(마 11:28). 또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히 9:27)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을 해야 한다.

6)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의식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罪)가 예수님에게 넘어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처리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義)가 우리에게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야말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내가 바로 이런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들은 사람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고 반문을 했다.

공짜가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대표 원리를 설명하면 된다. 월드컵에서 이정수 선수나 박주용 선수가 골을 넣으면 우리 한국이 골을 넣은 것이 된다. 이정수 선수나 박주용 선수가 한국의 대표 선수로 골을 넣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원리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것이 우리의 것으로 간주된다.

7) 나만하면 천당 간다는 의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자신이 훨씬 더 바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천국 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의 의(義)와 공로(功勞)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식이다. 유교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이나 어릴 때부터 예절 교육을 잘 받아 그대로 사는 사람이 주로 이런 반응을 보인다.

우리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거짓말도 죄고, 욕심 부리는 것도 죄고, 시기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는가? 욕심을 안 부린 사람이 있는가? 시기를 안 한 사람이 있는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하고 마음과 말과 행동이 완벽하게 의로워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런 사실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2. 신자의 의식(잘못된 생각) 전환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전도할 때, 불신자들의 의식과 반응이 어떤 것인지 위에서 살펴보았다. 이제는 우리 신자들이 전도하려고 할 때,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는지, 어떤 생각 때문에 전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1) ‘부끄럽고 두렵다’ → ‘주님을 위해 얼굴 두껍게’(롬 1:16)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부끄럽고 두렵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다. 전도는 해야 하겠는데, 전도하다가 혹시 상대방이 화를 내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어디서나 사람을 만나면 전도는 해야 하겠다는 부담을 느끼지만, 괜히 전도하려고 말을 꺼내다가 상대방이 역정을 내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게 된다.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부끄럽고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면 로마서 1장 16절을 기억해야 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는 또한 에스겔 2장 7절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력을 주신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겔 3:8~9).

우리는 전도할 때만은 얼굴에 첩판을 깔아야 한다. 얼굴에 첩판을 깔고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2) ‘전도하고 싶지 않다’ → ‘안 하면 내게 화’(고전 9:16)

우리가 전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도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이것은 전도하기가 ‘부끄럽고 두렵다’는 생각과 맞물려 있다. 전도를 하려고 하면 당장 부담이 오지만, 전도를 안 하면 당장은 편하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전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다는 부담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전도를 안 하면 당장 체면이 깎이지는 않는다.

우리는 전도하고 싶지 않을 때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우리는 동시에 에스겔 3장 18~19절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 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들이다. 전쟁이 올 때, 전쟁이 온다고 외치면 우리의 임무는 끝난다. 들은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준비 안 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3) ‘나는 시간이 없다’ →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딤후 4:2)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에 ‘나는 시간이 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 때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물론 이 말씀은 디모데와 같은 풀-타임 말씀 사역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전해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모른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멸망의 지옥과 영원한 생명의 천국, 둘 중 하나로 간다. 이것이 분명한 이상 우리는 때가 있든 없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4) ‘나 같은 게 뭘 전도하는가?’ →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빌 4:13)

전도하려고 할 때에 ‘나 같은 게 뭘 전도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신앙체험이 많지 않고, 인격도 부족하고, 생활도 부족하고 믿음도 약한 ‘나 같은 게 뭘 전도하는가?’ 하는 생각이다.

만일 인격이나 생활이나 체험이 완벽한 사람만 전도한다면 누가 전도하겠는가. 다 부족하지 않은가.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빌립보 4장 13절을 기억하고 전도에 순종해야 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물론 이 말씀은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고픔이나 배부름, 풍부나 가난, 존귀나 비천 등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폭넓게

적용하면 특별히 전도자와 세상 끝 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마 28:20)이 늘 함께 하셔서 전도를 감당하게 해 주신다고 믿고 전도해야 하는 것이다.

5) ‘무엇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 → ‘예수 믿으면 구원’(요 1:12; 3:16)

전도를 하고 싶어도 ‘무엇을 전해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과 3장 16절을 전하면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전도할 때 이런 정도의 간단한 말을 하면 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무엇을 전도할지 모를 때에 4영리나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면 좋다. 그러나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전도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을 신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6) ‘질문을 받으면 답변을 할 줄 모른다’ →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벧전 3:15)

전도하다가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답변을 할 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 만일 답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지혜롭게 넘길 수도 있다. “그런 질문은 제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목사님은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면 제가 목사님을 뵈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답변할 줄 몰라서 전도하기가 두려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가급적으로 전도폭발 훈련을 받는 것이 좋다. 전도폭발 훈련을 5단계까지 받으면 웬만한 질문에는 다 답변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답변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한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벧전 3:15).

7) ‘나는 해도 안 된다’ → ‘부린 대로 거둔다’(시 126:5; 갈 6:9)

전도할 때 ‘나는 해도 안 된다’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힐 수 있다. 어떤 신자가 전도하면 전도가 잘 되는데 나는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물론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대로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를 받은 신자가 있다. 소위 전도의 은사를 받은 신자가 전도하면

효과가 큰 것은 사실이다. 신유 은사를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병을 좀 더 일찍 고치게 되는 경우와 같다.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도 병 고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약 5:16). 마찬가지로 전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도 전도해야 한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이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둔다. 눈물을 흘리면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 126:5).

전도는 착한 일이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엡 6:9).

8) ‘난 딱 일을 하니까’ → ‘나도 전도해야’(마 28:18~20)

전도의 부담을 느낄 때 우리는 흔히 ‘난 딱 일을 하니까 전도 안 해도 된다’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설교하니까. 나는 주일학교 교육을 하니까. 나는 찬양을 하니까.’ 이런 ‘딱 일’을 하니까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도하지 않는 자신을 정당화하고 전도에 대한 부담을 다른 일로 상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태도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로써 우리에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을 것을 당부하셨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대위임령(마 28:18~20, Great Commission)에 순종할 때에 천상천하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9) ‘젊은 양이 새끼를 낳는 거야’ → ‘모든 신자 제사장’ (벧전 2:9)

믿은 지 오래 되면서도 전도하지 않는 신자들 중에는 ‘젊은 양이 새끼를 낳는 거야’라고 하면서 전도의 부담을 초(初)신자들에게 떠넘기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잘못된 태도이다.

우리 모든 신자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우리는 제사장들로서 불신자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장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출 19:6).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신 것은 선민 이스라엘을 만민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상과 같이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핑계를 대거나 전도하지 않는 자신을 정당화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평생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인생을 걸고 충성해야 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 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 20:24).

3. 목회자의 역할

목회자는 전도에 대한 불신자의 의식을 잘 파악해서 평신도들이 잘 대응하도록 평신도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목회자는 또한 전도에 대한 신자들의 의식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목회자는 교인들에게는 전도하라고 하고 자신이 전도하지 않아도 되는가?

만일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위선자가 아닌가?’ 하는 부담을 느낄 것이다.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전도하라고 하고 자신은 전도하지 않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목회자는 전도에 있어서도 교인들의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하시고 자신은 전도하시지 않고 가만히 계셨는가? 아니다. 예수님은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마 9:35).

바울 사도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 4:2)고 해 놓고 자신은 가만히 있었는가? 아니다. 바울은 앞서 인용한 대로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행 20:24).

목회자도 예수님과 바울처럼 전도를 해야 한다.

목회자는 물론 강단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나 목회자는 강단에서만 아니라 평소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목회자는 ‘설교 전도’만이 아니라 ‘개인 전도’도 해야 한다. 목회자는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목회자는 새생명축제를 앞두고 평소에 태신자를 정해 놓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목회자가 전도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도의 마지막 고리가 되는 것이다. 전도할 때, 대상을 최초로 접촉하는 첫 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접촉하는 중간 고리가 있다. 대개 교인들이 자기 가족을 전도할 때, 오랫동안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다가 어느 단계가 되면 목회자에게 “우리 아빠에게 복음을 좀 전해 주세요.”라고 요청한다. 그 때 목회자는 ‘마지막 고리’로 최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의 경험을 두고 볼 때, 교인이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 달라고 내게 부탁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

경우 거의 95%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까지 따라 하게 한다.

목회자가 전도의 마지막 고리가 되는 것은 목회자의 신분상 불신자들과 접촉하는 때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불신자들도 목회자의 신분을 알면 접촉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꺼리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전도의 마지막 고리가 된다고 해서 전도의 첫 고리나 중간 고리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목회자도 늘 전도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도의 마지막 고리가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목회자는 스스로 전도도 해야 하지만, 교인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무장시켜야 한다. 목회자의 훈련을 받은 평신도가 각기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기만 하면 교회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전도하도록 무장된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영적으로 강한 군대이다.

하나님께서 ‘목사/교사’로 세우신 것은 각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엡 4:11~12). 목회자는 목사이면서 동시에 교사이다. 목회자는 목사로서 교인들을 돌보고 먹일 뿐 아니라,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도록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한다. 목회자는 평신도가 전도만 하도록 무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 평신도가 예수님을 닮아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하도록 훈련시켜야 한다(마 9:35).

평신도들은 오케스트라 협회의 이사들이 아니다. 지휘자를 고용해 놓고 앉아서 오케스트라나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평신도들은 공연회에서 각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이다. 목회자는 지휘자이고 평신도들은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이다. 목회자는 지휘하고 평신도들을 연주해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놀라운 심포니를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4. 전도의 이유

목회자가 평신도들에게 전도하도록 훈련을 시킬 때에 왜 전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왜 전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하든지 ‘왜?’가 분명해져야 동기 유발이 이루어진다. 전도도 마찬가지다.

1) 하나님의 뜻(겔 18:23; 벧후 3:9)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겔 18:23).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벧후 3:9).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실 뿐 아니라 사람들을 실제로 불러내신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는 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 있다. 전도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면 의외에 교회에 호의적인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 모시고 나와서 교회 식당에서 점심 식사로 국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바로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

예전에는 10명을 접촉하면 그 중에 1명은 열려 있다고 했지만, 요즘은 30명 중에 1명, 지역에 따라서는 50명 중에 1명이 열려 있을 수 있다. 50명의 중에 1명을 만나기 위해서는 49명에서 거절되는 아픔이 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값진 고통이다. 그것은 고민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고통이다(행 5:41). 50명 중에 1명이라도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전도할 때에 전도의 의욕과 희망이 생기고, 전도의 보람을 느낀다.

1년 반 전에 예수를 믿은 청년이 있다. 그가 지금 군대생활을 하고 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가족들의 박해가 아주 심했다. 그가 얼마 전 청년부 목회자에게 전화를 해서 “강도사님, 이제는 우리 어머니와 동생도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라고 했다. 그 청년도 감격하고 청년부 목회자도 감격했다. 한 사람이 전도를 받아 예수를 영접한 결과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행 16:31).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케이스이다.

2) 하나님의 사랑(요 3:16)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죄하신 자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롬 5:8, 10).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전도해야 한다.

3) 예수님의 명령(마 28:18~20).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Great Commission)이다. ‘큰 명령’(Great Commission)이 ‘큰 생략’(Great Omission)이 된 것은 교회의 큰 범죄(Great Sin)이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우리는 전도를 해서 모든 족속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일에 순종해야 한다.

4) 복음의 빛(롬 1:14~17)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갇아도 되고 안 갇아도 되는 빛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상 복음의 빛은 항상 반드시 갇아야 한다.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빛을 갇는 자세로 전해야 한다(롬 1:14~17). 복음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롬 1:16).

5) 파수꾼의 책임 (겔 33:1~9)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파수꾼으로 삼으셨다. 우리는 심판의 칼이 임하기 전에 경고하는 파수꾼이다. 파수꾼은 칼이 임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나팔을 불어야 한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 사람들이 전쟁에 대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그러나 전쟁이 오는데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것은 파수꾼의 책임이다. 하나님은 엄중한 경고를 하셨다.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의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에의 손에서 찾으리라”(겔 33:6).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겔 33:8).

우리는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하나님은 으레 그렇게 경고하시지만...’ 하고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는 어리석은 태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을 엄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6) 임마누엘 체험(마 28:20)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실제로 체험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체험을 하게 된다. 이런 체험은 그 자체가 감격이요, 보람이요, 행복이다.

7) 더 하시는 복(마 6:33)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추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와 기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최우선에 둘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영육간에 복을 채워주신다.

8) 의의 면류관(딤후 4:1~8)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딤후 4:8).

5.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식 : “맛 청 말 좋아요.”

우리 신자들과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맛 청 말 좋아요.’ 이것이 비결이다.

1) 맛

요즈음 전도가 만만치 않다는 것은 목회자나 신자나 다 알고 있다. 전도를 할 때에 무조건 밖에 나가서 붙잡고 전도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래도 전도의 방식을 많이 바꾸어야 한다. 신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다. 개인 신자나 교회가 전도를 할 때, 요즈음 사람들에게

먹히는 전도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개별 신자나 교회가 ‘맛’이 살아 있어야 한다. 혹시 맛을 없다면 맛을 ‘살어나게’ 해야 한다.

우리는 맛이 좋아야 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밟힐 뿐이니라”(마 5:13).

개별 신자는 ‘맛’ 있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 예전에는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전도하면 한 두 사람을 건져낼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도를 할 때 ‘역(逆)전도’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예수님을 믿어 보세요.’라고 하면 ‘예수 믿는 것들이 다 그 모양 그 꼴인데 무슨 예수를 믿어?’라는 식으로 역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왜 그런가? 신자다운 신자가 적기 때문이다.

교회가 목회전략 중에 제자훈련을 넣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그 뜻이 매우 깊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다운 신자를 교회가 만들어내면 신자의 ‘맛’을 살릴 수 있다. 신자의 ‘맛’을 살리는 신자의 전도가 먹혀들 수 있는 것이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예수에게 ‘미친’ 사람(mad for Christ)을 만들어내면, 그런 신자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에게 인도할 수 있다. 예수의 광인(狂人)이 예수의 장인(匠人)이다. 예수에게 미친 광인(狂人)이 다른 사람들을 예수에게로 인도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장인(匠人)이 된다는 것이다.

교회도 ‘맛’이 있어야 한다. 교회가 사회교육과 의료와 복지에 무관심한 채 개교회주의로 흐르는 동안 교회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된다. 교회의 활동반경이 좁아지면서 영향의 폭이 좁아지는 것이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때, 전도의 능력이 그만큼 강화되는 것이다.

교회가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교인들이 듣기 좋은 설교나 하면, 교회는 그 맛을 잃게 된다. 교회가 원색적 복음에 물을 타서 그 맛을 약화시키면 교회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 같지만 사실은 약화된다. 교회가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야 불신자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 불신자는 그런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우리는 맛있는 교회가 될 수 없을까? 맛이 없는 사회에 맛을 주고 썩은 사회의 부패를 막아주는 교회! 우리는 맛있는 신자가 될 수 없을까? 우리는 맛없는 개인에게 맛을 주고 썩은 개인의 부패를 막아주는 신자!

1997년에 17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던 삼성전자가 5년이 지난 후, 세계 빅 브랜드 34위가 되었다는데 우리 교회가 사회에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없을까?

미칠 수 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큰 산이 평지로 변하도록 할 수 있다(스

4:6). 성령의 능력을 입고 순종하여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맛있는 신자, 교회가 맛있는 교회가 되기만 하면! 삶의 맛만 있다면 교회와 신자는 세상에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벧전 3:16).

교회는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를 받고 등록한 초신자들을 끝까지 관리하고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국 복음을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마 9:35) 목회철학 뿐 아니라 ‘오도록(전도) - 보도록(양육) - 배우도록(교육) - 해보도록(훈련) - 말도록(사역)’ 하는 단계별 목회방침도 있어야 한다. 특별히 초신자가 기존 신자의 부정적인 말이나 싸늘한 태도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교회의 ‘따뜻한 맛’을 유지해야 한다. 초신자가 기존신자 5~6명과 친하게 지내면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론이 있다. 초신자가 사랑방에 연결되어 사랑방의 5~6명 식구들과 친해지면 장기적으로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다.

2) 정(情)

신자나 교회는 ‘맛’이 있을 뿐 아니라 ‘정’(情)이 있어야 한다. 정(情)은 우선 친해져야 우러난다. 정은 친밀성(proximity)과 비례한다.

교회가 보통 전도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교회가 정(情)이 물씬 풍기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전도회 별로 가령 1여전도회는 호스피스 사역을 통해서 정(情)을 베풀고, 4남전도회는 동네 주민들에게 꽃씨 나눠주고, 5여전도회는 지하철에서 음료수를 나눠주는 등 정(情) 나누기를 해야 한다.

교회마나 새생명축제나 전도축제를 하는데 교인들을 그 때마다 굉장한 부담을 느낀다. 물론 전도에 대한 부담을 ‘거룩한 부담’이라 느끼게 해야 한다. 그러나 부담만 느끼고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런 불필요한 부담은 교회가 줄여 주어야 할 것이다. 교인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 주면서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정을 베푸는데 실제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써내게 해서 교회 예산을 교인들이 전도하는 일에 실제로 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인들이 평소에 교회가 주는 돈을 가지고 태신자들에게 정을 베풀다가 전도축제 직전 한 달 동안 부담 없이 교회에 데리고 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가 ‘맛’을 내면서 동시에 교인들이 ‘정’(情)을 부담 없이 나눠 주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시골 교회 목회자는 시골 토양에 맞는 ‘정’을 나눠주었다고 한다. 농사철에 일손이

모자라는 불신자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열매도 따주고, 풀도 좀 뽑아주었다. 모심기 철에는 일손이 모자라 속이 바싹바싹 타들어 가는데, 그런 때에 목회자 부부가 농촌 일손이 되어준 것이다. 그렇게 ‘정’을 나눠 준 결과 5~6명 교인이 30~40명이 되었다. 불신자 어머니가 제일 먼저 그런 과정으로 예수를 영접해서 지금은 한 가정 25명이다. 예수를 믿고 있고, 그 중에 목회자도 나왔다.

우리가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웃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 우리 교회에는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 어른들이 다 정말 반가워하는 신자가 있다. 평소에 웃으며 인사하고, 때때로 선물을 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달려가 도와주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 보배다. 마을 사람들이 다 그녀를 며느리처럼, 엄마처럼, 아줌마처럼 좋아하고 따른다. 마을 사람들에게 정을 쏟아 붓기 때문이다.

고등부의 어떤 교사는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지만, 퇴근할 때마다 학원이나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찾아가서 음식과 우유를 나눠 주곤 했다. 자기 반 학생들에게 나눠주다가 어느 기간이 지나면, 그 학생들의 친구들에게도 나눠 주었다. 그렇게 해서 친해진 다음에는 “너 교회 한 번 가 볼래?”라고 전도했다. 학생들은 그 교사와 정이 드니까 자연스레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그 교사는 연초에 받은 학생들 숫자를 가을에는 꼭 두 배로 늘리곤 했다. 이것은 정(情)이 들면 전도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 케이스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롬 12:18). 우리는 믿는 친구도 사귀어야 하지만, 안 믿는 친구도 사귀어야 한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을 친구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귀지만),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다(마 11:19).

요즈음은 정이 메말라 있다. 정이 그리운 세상이다. 우리가 정을 주면서 관계를 맺으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다. 우리 교회 그 권사님은 이웃들과 정을 나눔으로 1년에 20~30명씩 주님께 인도하신다.

3) 말

우리는 삶의 맛도 좋아야 하고, 사람들에게 정을 주면서 사귀기도 해야 하지만, 반드시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성경은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호 4:6).

“지도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행 8:31)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롬 10:14).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벧전 3:15).

교인들이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면 복음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폭발을 받은 신자들은 한 걸 같이 복음을 선명하게 전할 수 있는 자신이 생겼다는 고백을 한다.

4) 좋아요

우리가 삶의 ‘맛’과 사귀의 ‘정’과 전도의 분명한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좋아요!’라는 변화의 반응이 반드시 일어난다.

남편을 위해서 27년간 ‘정’을 베풀면서 기도한 여자 교사가 있다. 그녀는 27년간 기도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남편을 전도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포기하는 심정으로 “성경에는 예정(豫定)이라는 게 있어요. 당신은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라고 최후통첩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뜻 밖에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이번 달만 쉬고 다음 달부터는 교회에 나갈게.”라고 했다고 한다. 그녀의 남편은 약속한 대로 교회에 나와서 지금은 설교 말씀을 달게 받아 먹으면서 아내와 함께 십일조도 하고 있다. 신자다운 ‘맛’을 가지고 ‘정’을 나눠주고 때로는 충격적인 ‘말’을 선명하게 할 때에 마침내 이런 열매가 맺혀진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후 5:17, 19).

지금은 전도가 만만치 않은 시대, 전도가 부담스러운 시대이지만 그래도 전도에 재미를 보고 있는 교회가 있다. 손현보 목사님이 섬기는 부산의 세계로교회다. 손현보 목사님은 20~30명 되는 부산의 어촌 교회에 부임해서 지금은 2,000명 교회로 일구어냈다고 한다. 손 목사님은 “좋은 이웃!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슬로건 하에 교인들의 능력이 10개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한 결과,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다. 손현보 목사님이 쓴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란 책은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교인들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맛’이 살아 있고 ‘정’을 나눠주고 ‘말’로 선명하게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좋아요’라는 감격스러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 교회나 신자가 ‘맛’이 있고 ‘정’을 나눔으로써 민심(民心)을 얻으면 ‘말’로 전도하는 것이 먹혀들게 되는 것이다.

6. 전도의 유형

1) 내용과 방법

복음은 완벽하고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시대와 문화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성경은 전도방법으로 ‘이것이 절대적이다. 이것만 해라’고 하지 않는다. 어떤 방법은 어떤 시대, 어떤 장소,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다른 시대, 다른 장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는 덜 효과적일 수 있다. 방법은 신축성이 있고 다양하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2) 매체

- * 문자 매체: 말(개인전도, 소그룹 교제, 전도집회), 글, 테이프, 그림, 영상, 드라마 등.
- * 생활 매체: 말 없는 감격, 변화된 삶,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 선행, 교제 등.

3) 말을 통한 개인전도

- (1) 직설형: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식으로 정면으로 도전하는 전도 형태.
- (2) 지성형: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정보나 지식을 제공해서 전도하는 전도 형태.
- (3) 간증형: ‘예수 믿으니 정말 좋아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은 후에 변화된 삶을 나누는 전도 형태.
- (4) 대화형: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형태.
- (5) 초청형: ‘우리 교회 잔치에 한 번 와 보세요. 선물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주로 새생명축제에 초청하는 전도 형태.

4) 삶을 통한 개인전도

- (1) 감격형: 예수님을 믿는 행복한 삶을 보여주는 전도.
- (2) 변화형: 예수님을 믿은 후에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도.
- (3) 교제형: 친구나 친지로 사귀면서 가끔 식사나 파티에 초청하는 전도.
- (4) 봉사형: 친척이나 이웃이나 친구의 경조사를 챙겨주는 전도.

7. 대구동신교회의 전도방법

- 1) 포화전도(saturation evangelism) :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도하되, 1년에 1구씩 모든 가구에 문서로 복음을 전하는 것. 동신교회는 2008년에는 수성구 20만 세대, 2009년에는 동구 16만 세대, 2010년에는 북구 12만 세대를 대상으로 전도. 예수 믿는 탈렌트 사진이 든 전도지로 소금으로 배추 절이듯 하는 전도.
- 2) 관계전도: 불신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친지와 평소에 상당 기간 관계를 맺고 호의적인 반응을 유발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
- 3) 치유전도 : 이웃과 덕담을 나누며 교제하다가 어느 정도 친해지면, 이웃의 문제를 듣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로 치유해 주는 전도. 전도대상자가 가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한 후에 전도대상자에게 문제가 해결되면 연락을 달라고 해서 주님과 연결하는 전도.
- 4) 새생명축제 : 부활절 때, 태신자를 작정하게 하고 내내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게 한 후에 10월 말에 교회의 전도축제에 초청하는 전도.
- 5) 파라솔 전도 : 파라솔에 ‘예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는 문구를 붙이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가서 음료수를 대접하면서 잠시 복음을 전하는 전도.
- 6) 시온산 등반대 : 대구의 상징인 팔공산은 우상숭배의 센터가 되어 있는데, 그 팔공산을 하나님을 섬기는 시온산으로 만들자는 취지를 가지고 팔공산 등반을 하면서 휴지도 줍고 다과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 7) 갓바위 전도 : 팔공산의 갓바위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불교 신자들이 복을 구하기 위해서 모여드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 8) 문화대학 : 주로 주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목을 개설해서 주부들에게 좋은 강의와 기술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 9) **경로대학** : 어르신들에게 매주 목요일 무료 중식을 제공하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강좌를 개설해서 좋은 강의와 음악과 스포츠 등을 제공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 10) **학교와 병원과 군대** : 대구동신교회 주변 초등학교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나가서 팝콘 등을 제공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원은 병원 전도팀이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군대는 군선교팀이 장병 세례와 차와 예배당 건축 등을 도우면서 전도.
- 11) **전도편지** : 이슬비 전도 편지를 통한 전도.
- 12) **참신 사랑방** : 신자 한 명도 없는 사랑방을 만들어 놓고, 주로 부부가 이웃 주민들을 전도해서 사랑방에서 먼저 교제하고 기본적인 복음을 전한 후, 교회로 연결시키는 전도.
- 13) **주일학교 교육** : 영아부, 유치부, 초등 1~6부, 중등 1~2부, 고등 1~2부로 나누어 예배와 분반공부와 수련회 등을 통해 복음 교육을 제공하면서 전도. 영아부부터 고등2부까지 체계적인 목회철학에 따라 연계성이 있는 성경교육과 제자훈련과 학업훈련을 제공하면서 전개하는 전도.
- 14) **방과후 학교** : 토요일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목들을 개설하여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돌봄을 통해서 전개하는 전도. 불신 학생들의 비율을 신자 학생들보다 많이 전도하되, 학생들을 픽업하는 부모들에게도 기다리는 동안에 전도.
- 15) **영어 예배** : 성인 영어예배와 어린이 영어예배, 영어 성경공부 등을 통해서 영어에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과 학생들을 인도해서 전도.
- 16) **중국어 교실** :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영어와 중국어를 다 같이 구사할 수 있어야 지금 영어를 하는 정도로 교회와 사회와 세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중국 유학생들을 통해서 중국어 교실을 열어 중국어도 가르치고 전도도 함.
- 17) **예능 교실** : 앞으로는 어떤 분야에서든지 포스트모던 시대답게 '튀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성공한다고 보고, 학생들에게 예능을 가르쳐 줌으로 사람들의 관심사에 맞는 제품을 만들고 강의를 제공하는 등 문화적인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통해서 하는 전도.
- 18) **중국인/ 베트남인 예배** : 중국 유학생들과 베트남 유학생들 및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함.
- 19) **사랑의 음악회** : 사랑의 음악회에 태신자들을 초청하여 음악을 통한 전도.

- 20) 필로세 (까페) : ‘사랑합니다’는 뜻을 가진 헬라어 ‘필로세’를 까페로 운용하여 전도.
- 21) ‘사랑합니다’ : ‘사랑합니다’는 계간지를 통해서 문화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 전도.
- 22) 명사 특강 : 주로 금요 기도폭풍집회에 유명강사들을 가끔 초청하여 태신자들에게 좋은 강의를 통해 전도.

8. 전도 독려 설교 : “절규와 애원” (눅 16:23~31)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후의 세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주변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우리에게 증언한 사람이 없습니다. 죽었다가 천당과 지옥을 갔다가 와서 우리에게 증언한 사람이 없습니다. 천당 지옥 간증 집회가 더러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믿을 것이 못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처럼 사후(死後) 세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게 말씀하신 비유는 없습니다. 사랑이 제일 많은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제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세의 삶에 있어서, 부자의 삶과 나사로의 삶은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부자는 조개나 굴, 새우, 게 등으로부터 채취한 자주색으로 염색한 옷으로서 당시에 주로 왕족이 입던 최고급 자색옷을 겂옷으로 입었습니다. 속옷은 아마(亞麻)로 된 담황색 고운 베옷을 입었다. 요즈음 식으로 말하면, 겂옷은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수입 옷으로 입고 속옷도 수십만 원짜리 외제로 걸쳤습니다.

부자는 속과 겂을 돈으로 화려하게 치장할 뿐 아니라,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5형제 가족들과 친지들을 모아 놓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부자는 부(富)를 사용하기는 사용했으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치하고 과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공작새는 화려한 자신의 날개를 자랑하고 과시합니다. 본문의 부자는 부(富)의 공작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무노동과 사치와 과시, 요즈음 말로 하면 불로소득(不勞所得)과 과소비의 노예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남에게 과시하는 부의 광대(rich exhibitionist)입니다.

부자는 최고의 옷으로 몸을 싸고 최고의 음식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부자는 재산을 남들에게 자랑하면서도 한 가지 소유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동정심을 도려낸 부자였습니다.

나사로라는 거지는 부자의 대문간에 항상 누워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가난했고 병들었습니다. 피부 궤양이 심했습니다.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면서 행인들을 해치고 쓰레기에 코를 박는 개들이 와서 그 궤양을 핥았습니다. 나사로는 제 발로 걸을 수도 없는 불구자였습니다.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한 상거지였습니다. 나사로는 부자들의 입에 들어갔다 나온 찌꺼기를 먹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 땅의 삶은 현격하게 달랐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을 때는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품”, 즉 천국으로 에스코트해 주었습니다. 신자들이 별세하면 육신은 운구위원들이 옮겨줍니다. 영혼은 천사들이 천국으로 에스코트해 줍니다.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세상을 떠난 이동진 집사님과 하정호 집사님의 영혼은 천사들이 천국으로 에스코트해 주었습니다. 지금 집사님들의 영혼은 상상을 초월하는 천국 낙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천년만년 호화롭게 살 것 같은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히 9:27).

사람들이 제아무리 죽음의 목구멍에 곤봉을 집어넣어 막으려고 해도 죽음은 여전히 그 큰 목구멍을 벌리고 음산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망의 목구멍을 막고 그 입을 틀어막는다고 해서 사망이 소리를 지르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사망을 막는다고 해서 사망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사망은 부자에게도 찾아왔고 거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죽음 그 이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자와 거지는 죽음을 통해서 내세로 들어갔습니다. 부자와 거지의 내세는 어떠했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바로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하는데 ‘지옥’(KJV, NAS, NET, NIV)입니다. 지옥은 악인들이 가서 영원히 의식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장소입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렇게 절규했습니다(23~24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 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합니다. 정신적인 고민도 극심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만큼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 후에는 없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의식적인 고통은 있지만, 영원한 고통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올까요?

성경에 ‘멸망’ 혹은 ‘파괴’라는 말이 나오는데(빌 3:19; 살전 5:3), 이것은 죽으면 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멸망’이라는 단어는 존재가 끝난다는 뜻이 아니라, 징벌의 파괴적인 효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넣어 영원히 의식적인 고통을 당하게 하겠느냐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가해자가 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억울해서 견디지 못합니다. 공의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스탈린과 히틀러와 김일성 같이 벌할 사람을 반드시 지옥에서 벌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실 정도로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죄인들이 믿기만 하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지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무한한 죄악입니다. 따라서 무한한 죄의 결과로 지옥에서 무한히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겔 33:11). 예수님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마 23:37~38). 바울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동족들 때문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느꼈습니다(롬 9:2).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672명, 대구만 33명이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1/4로 잡으면, 하루에 500여명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한 달이면 1만 5천 명, 1년이면 18만 명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가므로 우리 마음이 아파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파도 현실은 현실입니다. 불신자들이 영원토록 의식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Beyond Death's Door)라는 책이 있습니다. 심혈관질환 전문가 모리스 롤링스(Maurice Rawlings) 박사가 쓴 책입니다. 롤링스 박사는 모든 종교를 속임수로 보고 죽음은 고통이 없는 사멸(死滅)로 보았던 무신론자였습니다. 골수 무신론자 롤링스 박사가 1977년 극적인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롤링스 박사가 방금 숨이 넘어간 환자를 소생시키고 있었습니다. 롤링스 박사는 그의 책 3쪽에 당시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환자가 맥박과 호흡을 다시 시작할 때마다 ‘나는 지옥에 있어!’라고 비명을 질렀다. 그는 공포에 질려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나도 죽도록 무서웠다... 그 때 나는 그의 얼굴에서 정말 겁에 질린 표정을 보았다. 그의 모습은 시체보다 더 무서운 공포 그 자체였다. 그는 공포와 전율로 괴상한 표정을 짓고 얼굴을 찡그렸다. 눈동자가 흐려지고 땀을 흘리고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머리카락이 바짝 선 것 같이 보였다. 그 후에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는 외쳤다. ‘내가 지옥에 있다는 걸 몰라?... 제발 날 지옥으로 돌려보내지 마!’ ... 그는 심각하게 말했다. 마침내 나는 그가 정말 괴로워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내가 전에 보지 못했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롤링스 박사는 그의 비명을 듣고 그의 공포의 표정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가 정말 지옥에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987년 4월 10일 <버밍햄 뉴스>는 “과학자들은 지구의 중심이 태양 표면보다 더 뜨겁다고 말한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구의 중심은 화씨 12,000도(섭씨 약 6,600도) 이상이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14세기 유명한 천문학자 겸 의사 카스카과 퓨서(Caspar Peucer)는 헝가리(Heklafell)이라는 곳에서 화산 폭발을 연구해서 매우 무시무시한 정보를 기록했습니다. 퓨서는 <화산 폭발에 대한 사상의 역사>라는 책 73쪽에서 화산이 폭발할 때 “무서운 울부짖음과 이를 갈면서 통곡하는 소리”가 몇 마일 밖에까지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퓨서만 그런 통곡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산에서 비명 소리를 들었으나 무시해 버렸다고 합니다. 퓨서는 “화산에서 들려온 그 무시무시한 소리들은 지옥 불 속에서 고문당하는 영혼들의 비명들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증언했습니다.

지옥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학자들은 땅 속일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우는 곳(마 8:12; 13:42), 이를 가는 곳(마 13:50), 어둠(마 25:30), 불꽃(눅 16:24), 타는 곳(사 33:14), 영원한 멸망(마 25:41, 46), 불가마(마 13:42), 영원한 불(마 18:8; 25:41), 영원한 쇠고랑(유 6), 영원한 저주(막 3:29), 영원한 심판(히 6:2), 꺼지지 않는 불(막 9:43, 44, 45, 46, 48; 눅 3:17) 등으로 소개합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고 절규했습니다. 부자는 또 이런 애원을 했습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7~28절). 예수님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 “모세와 선지자들,” 즉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해도 듣지 않는다고 잘라 말씀하셨습니다(29~31절).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부자가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을까요?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가지고 자기 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그런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옥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형제들이 '회개'하게 해 달라는 말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

부자가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습니다(마 12:33).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쁜 나무'였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대문 밖에 누워 있는 거지를 돕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굳이 밝히신 것은 나사로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면 다 부자처럼 이렇게 울부짖을 것입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내 형제들이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참혹하고 처절하고 통탄스럽고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 부자가 살아 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의식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 10:13).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설마 지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진리인 성경이 말합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편지를 써서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보니 정말 좋더라.”고 간증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고 대답하는 식으로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와 보세요.”라고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삶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식탁교제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봉사를 통해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와 보세요.”라고 초청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입니다(마 28:18~20). 전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경고입니다.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겔 33:8). 우리는 제자와 파수꾼으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합니다.

퓨리탄 학자 존 오웬(John Owen)이 임종 시에 그의 비서가 그의 친구에게 “저는 아직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 있습니다.”라는 글을 대필해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 때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걸 이렇게 바꾸세요. 나는 아직 죽어가는 자들의 땅(the land of the dying)에 있으나 곧 살아있는 자들의 땅(the land of the living)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희망합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자들의 땅”에 살다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 천국에서 영원히 복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은 “죽어가는 자들의 땅”에 살다가 영원히 의식적인 고통을 당할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이 그곳에 가지 않도록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설마 그런 지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자가 절규하고 애원하는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내 형제들이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화산이 폭발하는 곳에 가서 그것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는 부자의 가장 참혹한 절규와 가장 애절한 애원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지옥의 현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낙원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은 영원히 의식적으로 고통당하는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는 천당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부자의 절규와 애원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빛의 사자들로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9. 전도 설교 : “최고의 생명보험” (롬 6:2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의 권유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은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

사람들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듭니다. 미래에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듭니다.

교육 보험을 듭니다. 자녀들의 교육비를 미리부터 장만하기 위해서입니다.

암 보험을 듭니다. 암이 걸렸을 때, 많은 치료비를 미리 마련해두기 위해서입니다.

사망 보험을 듭니다. 사망 시, 사랑하는 가족들의 장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교육 보험이나 암 보험이나 사망 보험,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보험은 들 수만 있으면 들어 두면 유익합니다.

그러나 어떤 보험을 들어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는 대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보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죽음’입니다. 교육 보험을 들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암 보험을 들어도 죽음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망 보험을 들면 유족들에게는 다소 유익을 주지만, 정작 본인의 죽음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험은 없을까요?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죽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안 죽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약이 있다면, 그 약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하는 불사약은 없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죽습니다. 사람은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이것은 무신론자와 공산주의자의 생각입니다.

“죽으면 새로운 몸이 되어 돌아온다.” 이것은 힌두교인과 일부 불교인의 생각입니다.

“죽으면 다 좋은 곳으로 간다.” 이것은 만인구원론자의 생각입니다.

“죽은 후에 다시 기회가 있다.” 이것은 물몬교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위의 생각은 다 사람들이 짐작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당과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히 9:27).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새로운 몸으로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죽으면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은 후에 다시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이나 지옥, 둘 중의 하나로 들어갑니다.

14세기의 유명한 천문학자 겸 의사 카스파 푸셔(Caspar Peucer)는 <화산 폭발에 대한 사상의 역사>라는 책 73쪽에서 화산이 폭발할 때 “무서운 울부짖음과 이를 갈면서 통곡하는 소리”가 몇 킬로 밖에까지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만 그런 통곡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산에서 나는 그 비명 소리를 들었으나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는 “화산에서 들려온 그 무시무시한 소리는 지옥 불 속에서 고문당하는 영혼들의 비명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실 화산 폭발 현장에서 가서 사람들이 지옥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면 좋겠다.’고 절규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천국은 영원히 복되게 사는 최고의 낙원입니다. 영광일세 ~ 내가 누릴 ~ 은혜로 주 얼굴 뵈옵는 것 참 아름다운 영광이로다.

‘당장 살기 바쁜데,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도 싫다.’ ‘현재 밥 벌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사후세계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죽음과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기조차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눈 감고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다고 죽음과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으로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마이클 잭슨도 50세에 심장박동이 멈추어 죽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에 죽는 사람이 25만~3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하루 평균 670여 명이 죽습니다. 대구에서만 하루에 30여명이 죽습니다. 우리가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문제는 언제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는 나이순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나를 찾아올지 모르는 무시무시한 죽음--이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보험은 없을까요?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원인부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삯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의 원인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죄, 죄’ 하는데 나는 지옥 갈 죄 안 지었어. 나는 지금까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한 번도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죄가 없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 보십시오. “그러면 한 번도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욕심을 부린 적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그 사람도 입을 다뭅니다. 한 번도 거짓말 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한 번도 욕심을 부리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한 것도 죄요, 욕심을 부린 것도 죄입니다. 큰 죄도 죄요, 작은 죄도 죄입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죽음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를 해결하면 죽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회교는 “매일 다섯 번 기도하라.”고 합니다.

힌두교는 “벌레처럼 기어서 사원까지 가라.”고 합니다.

유교는 “사람의 도리대로 바르게 살아라.”고 합니다.

불교는 “쾌락과 고통에 대한 감각을 죽여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이렇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간추리면 이런 것입니다.

① 도(道)를 닦아라, 즉 진리를 깨우쳐라.

② 공(功)을 쌓아라. 즉 착한 일을 많이 해라.

③ 신심(信心)을 깊게 해라. 즉 종교적인 의식을 철저하게 행하라.

세상 모든 종교의 문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리 도를 닦고, 아무리 공을 쌓고, 아무리 신심이 깊어도, 역시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물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자신도 물에 빠져 떠내려가면서 다른 사람을 건져낼 수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 어떤 ‘사람’이라야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거나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도’(道), 즉 진리를 제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하셨습니다(요 14:6).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공’(功)을 다 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의’(義)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거짓말 하지 않았습시다. 예수님은 욕심을 부리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도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바르게, 선하게, 의롭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너무도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지독하게 혐오하던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한꺼번에 50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시에 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사망학자 스나이더만(Edwin Sniderman) 교수가 하버드에서 사망학 강좌를 개설하자 20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교실에 200명이 몰려왔습니다. 사망학이라고 하니 사망을 해결해 줄까 해서입니다. 그 이후 미국 대학들은 사망학 강좌를 전국적으로 개설했습니다.

우리는 사망학자의 사망학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사망의 원인인 죄의 독침을 제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친히 죽음을 이기시고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길을 제공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지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생명보험을 여러분에게 제공하십니다. 여러분은 생명보험에 가입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보험료는 무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제공하시는 생명보험은 무료입니다.

도를 닦지 않아도 됩니다. 공을 쌓지 않아도 됩니다. 신심이 깊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10).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생명보험은 무료이지만, 최고의 보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생명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죄 용서를 받고 죽어도 사는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현세에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복을 받습니다. 내세에 죄와 사망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낙원에서 영원히 복되게 사십니다. 현세와 내세에 복된 삶을 보장하는 생명보험! 이 시간 예수님이 제공하시는 최고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겠습니까?

10. 생명 카드 (간단한 복음을 담은 전도 방식)

1) 여기 '하나님' 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직접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고 합니다(창세기 1:1).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는 참으로 큼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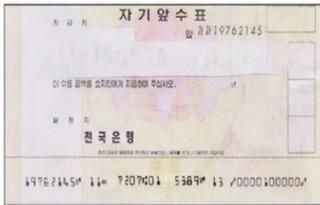
태양은 지구의 130만 배입니다. 엡실론이란 별은 태양의 23억 배입니다. 지구도 하나의 별입니다. 제임스 어윈이라는 우주 비행사가 달에서 지구가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태양도 별이고 지구도 별인데,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제1은하계에 5천억 개 이상의 별이 있고, 제2은하계에도 5천억 개 이상의 별이 있습니다. 그것 만해도 1조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하계가 1천억 개가 넘습니다. 하나님은 큰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전혀 없습니다.

2) 여기 '사람' 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람들이시고 저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닮은꼴로 고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고, 지혜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축구장 5개 만한 가시밭에 떨어진 바늘 하나를 찾을 정도의 정확성이 있어야 우주선을 쏘아 올립니다. 인간은 우주선을 쏘아 올릴 정도로 지혜롭습니다. 이렇게 고귀한 인간들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고 했습니다(로마서 3:23). 인간이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각종 종교행위를 해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3)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해결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했습니다(요한복음 3:16).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사람들의 죄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생의 다리로 연결하셨습니다.



4) 여기 뒷부분에 천국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가 있습니다.



수표금액이 없는 것은 영생의 복이 무한대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청 앞 롯데호텔 가장 좋은 방을 하룻밤 빌리는데 8백만 원입니다. 10일이면 8천만 원, 100일이면 8억, 1년이면 28억 8천만 원입니다. 10년이면 280억, 100년이면 2800억, 1000년이면 2조 8000억 여러분이 천국에서 사실 집은

롯데호텔 가장 좋은 방보다 더 좋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대한민국 예산으로 살 수 없고, 미국 예산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영생은 이렇게 무한대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공란으로 해 둔 것입니다. 이런 무한대의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자기 이름을 기록하면 됩니다.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 그분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고 했습니다(요한복음 1:12).

지금 여쭙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라고만 하시면 느낌이 없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하시기로 결심하셨으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간단한 영접 기도를 따라 하게 함).

[참조: 나의 개인전도]

☞ * 예1: 어느 대학병원에서

“아저씨, 여기 좀 앉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폐암입니다. 더러운 병이 걸려서... 나 같은 병이 없을 거요.”

“그래도 걸어 다니실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의 아버님은 2년 전에 쓰러지셔서 꼼짝 못하십니다. 화장실에라도 혼자 다니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없대구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저씨를 사랑하십니다. 아저씨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저씨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백지 수표를 주시면서 그 아래에 아저씨의 이름만 기록하면 되도록 하셨습니다. 아저씨, 거기에 아저씨의 이름을 기록하시겠습니까?”

“예.”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예.”

“아저씨, 그러면 제가 드리는 기도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

그는 “하나님 아버지” 에 “하나님 아버지” 으로 따라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믿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저씨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병이 나오시면 교회에 나가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아플 때에

‘하나님, 고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 * 예2 : 집으로 오는 택시 안에서

“아저씨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어요?”

“교회에 가야 잘 보내지요.”

“아저씨, 교회를 잘 아시나 봐요.”

“저도 어릴 때에 교회에 나갔습니다. 지금은 나가지 않지만 존경합니다.”

“누구를 존경합니까?”

“기독교를 존경합니다. 그 참 이상하더라고요. 사람이 완전히 변해요. 50대인데 예수 믿더니 못된 버릇 고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더라고요. 존경합니다.”

“아저씨도 예수 믿으셔야지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복된 삶을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해요.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아저씨, 바쁘셔서 교회에 못 나가신다면 택시 안에서 주일날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방송을 틀어 놓으시고 설교를 듣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 지금도 설교를 듣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손자들은 무조건 교회에 보냅니다. 교회에 다니는 중고등 학생들은 말썽을 피우지 않아요. 아이들 걱정하지 않으려면 교회에 보내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아저씨, 예수 믿으시지요?”

“예.”

“잘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 예3 :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김포에 사는 창가학회 여신도. 은퇴한 남편(침묵이 금이라는 분)과 함께 전원주택에서 생활. 아들은 MBA 마치고 강남에서 식당 운영. 딸은 고대 졸업 후 미국에서 정치외교학 박사과정.

“어디까지 가십니까?”

“서울 가지요.”

“그건 저도 알고요. 서울 어디요?”

“김포입니다. 김포 전원주택에서 삽니다. 남편이 은퇴해서요.”

“혹시 교회에 나가십니까?”

“아닙니다. 과거 초등학교 때 한 2년 다녔습니다. 지금은 불제자입니다. 창가학회 회원입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총신대학교 교수입니다.”

“무엇을 가르치세요?”

“예, 신학을 가르칩니다. 제게 창가학회의 교리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불교 교리의 핵심은 평화입니다. 대우주가 있고 소우주가 있는데, 내 속에 소우주가 있습니다. 내게 부처의 요소가 있고 나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십계를 말하는데, 지옥, 아귀, 수라(아수라장 할 때의 수라), 축생(짐승), 인, 성문(듣고 이해), 연각, 보살, 천, 불계가 그것입니다. 수라는 한 대 때리면 같이 때리는 것입니다. 수행을 많이 하면 중생의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혹시 체험하신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부친이 병에 걸리셨을 때 의사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소생이 되셨습니다. 남동생이 경북대 의대에서 3번 진단을 받았으나 병명도 모르는 상태로 고생했습니다. 남동생은 사업 때문에 분주해서 신앙을 등한히 했습니다. 기도도 안하고 공부도 안한 것입니다. 응급실에서 산소호흡으로 버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동생에게 마(魔)가 작용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동생은 불력(佛力)으로 쾌유되었습니다.”

“예, 좋은 경험을 하셨군요. 이제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제시했다. 그녀는 야유하는 태도로 내 말을 들었다.

내가 그녀에게 도전한 것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과연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인간은 다 죄인인데, 죄인인 인간이 죄인인 인간을

구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너무 죄, 죄 해서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happy한 것 아닙니까. 내 마음에 따라서 happy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기독교는 그렇게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합니까?”

“독약은 독약이라고 해야 하고, 암은 암이라고 해야 고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죄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2~3년 교회에 다니셨다는데, 기독교의 진리를 좀 아시겠네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다가 김포공항에 도착했고, 그녀는 그녀의 갈 길을 가고 나는 나의 집으로 왔다. 나는 그녀에게서 인간이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에 의해 영향 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는 불자 정도가 아니라 불교 스님 같았다. 예수 불제자설을 언급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했고, 기독교의 죄관과 내세관(현세에 기분 좋으면 되는 것인지 무슨 내세까지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공격했다. 나는 기독교를 변호했으나 그녀는 냉담했다. 그러나 인간은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녀는 집에 가서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모든 종교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고 한 것이 그녀의 뇌리에 계속 되뇌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그런 방식으로 그녀가 자신의 위치를 재고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한다.



참 교회의 본질

: 칼빈의 설교에 구현된 sola Scriptura 원리

문병호 교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1. 오직 말씀으로!

선교 130주년을 앞두고 있는 한국교회는 작금 새로운 전기(轉機)를 맞이하고 있다. 그 동안 계속되던 양적인 부흥이 그치고 오히려 뒷걸음질해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반감을 드러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초기 한국교회에서 메아리 쳤던 선교사들의 메시지는 성도의 구원은 지상의 삶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개혁주의의 가르침을 충실히 담고 있었다. 거듭난 성도는 중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상의 생명을 얻는 동시에 지상의 삶에 있어서도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마땅히 감당해야 한다는 경건한 의식이 선대 성도들에게는 충만하였다. 그리하여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성경적 가치관에 충실하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를 일구어내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한국사회가 산업화를 통한 고도성장을 이루면서 성도들도 세속적 가치에 점차 함몰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전적 은혜의 절대적 가치가 등한시되고 가시적으로 헤아려지는 지상적인 복만을 편향되게 추구하는 풍조가 더하게 되었다. 70년대와 80년대는 기복주의에 젖은 오순절주의가 그리고 90년대부터는 지상의 삶에 우선적 가치를 두는 문화주의가 직간접적으로 한국교회와 성도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

21세기 벽두부터 심각하게 나타난 교회의 침체는 전세기말의 이러한 경향과 무관하게 일어난 결과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교회가 도시 중심으로 집중화되고 신도시나 인구과 밀지역으로 몰려든 성도들을 수평적으로 흡수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니 생명의 복음을 충실하게 전하여서 영혼을 감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이차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목회윤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을 모으는데 지상의 가치를 두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름난 교회와 이름난 목사는 이전보다 더욱 많아졌으나 성도는 오히려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교회의 침체를 거론하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소위 목회방법론이나 프로그램에 매달리고 있다.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든 동원해 보아야 한다는 정황주의가 득세한다. 개혁신학과 도무지 양립할 수 없는 로마 가톨릭의 영성신학으로부터 기원한 전도법과 기도법이 무분별하게 수용되고 있다. 카네기 인생록에나 걸맞은 실용주의와 심리주의에 기초한 적극적 사고방식을 신앙이라는 미명 아래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적지 않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시련을 주신다고 하자. 그것을 우리를 싸매어 온전케 하고자 하심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교회의 위기를 운운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에 매달린다면 바알세불에게 병 낫기를 구한 아하시야와(왕하 1:2~4) 다를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경륜에 따라서만 다스려진다. 오직 성령의 임재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주의 백성과 교회가 다시금 언약 백성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명령하신다. 한국교회는 다시금 말씀 자체로 돌아가야 한다. 여호와와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릇 시냇가에 있든지 옛바알의 땅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의 공궤를 받든지 죽은 생명이라도 살리는 권능을 얻게 된다(왕상 17:2, 8).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곧 절망하고 혼절하여 사망의 권세가 엄습하는 것이다(왕상 19:3~4).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요 6:63). 이 시대는 오히려 들을 귀는 있으나 들을 소리가 없다.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일꾼이 부족하다(마 9:37).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이 시대는 들리는 소리는 많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부인되는 시대이다(딤후 3:5). 참새 한 마리가 울어도 산이 다 듣는다. 어떠한 전도법이 따로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생명의 소리를 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점일획이라도 가감 없이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겔 2:5, 7; 3:11),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딤후 4:2) 전하여야 한다. 먼저 전하여야 한다. 전하는 자의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먼저 사람들을 모은 후 일정 수가 차면 말씀을 전하겠다는 발상은 세상의 강연이나 해당한다. 합당한 전도법은 예수님의 방식을 좇아야 한다. 먼저 준비된 말씀을 전하면 무리가 모이게 된다.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모으게 하신 후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다. 어떤 세상적인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사람들을 모으기만 하면 된다는 요사이 발상은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진정한 강단의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기복적인 설교를 금하여야 한다. 참 성도가 아니라 건전한 시민을 만드는데 그치는 도덕 설교, 윤리 설교를 그쳐야 한다. 온갖 매체를

동원한 눈요기를 충족시키는 설교가 아니라, 커튼을 치고 설교를 하더라도 듣고 눈물 흘리는 설교를 해야 한다. 말씀 자체의 선포가 있어야 한다.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힘써야 한다. 개혁교회는 가르치는 교회(ecclesia docens, teaching church), 선포하는 교회(ecclesia praedicens, preaching church)여야 한다. 다른 전도법이 없다. 오직 말씀을 받은 바대로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에만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 입에 자신의 말씀을 두셨다(렘 1:9). 그리고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셨다(렘 1:17). 위기의 때에 호세아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은 여호와께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신다는 사실이었다(호 6:3, 6).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이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호 4:1, 6).

필자는 말씀전도와 교회부흥의 핵심은 말씀의 선포와 교육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평생에 깊이 인식하여 왔다. 금번 총회 전도부에서 제시한 “한국교회 부흥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해서” 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필자가 강단의 개혁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칼빈은 교회의 표지로서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성례의 합법적인 시행을 들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주요한 요소로서 권징을 강조하였다. 참 교회는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거행과 권징의 시행이 온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세 요소는 오직 말씀(sola Scriptura)! 이라는 개혁주의의 원리를 가장 본질적으로 드러낸다. 왜냐하면 말씀의 선포는 물론 성례의 핵심은 주님의 말씀을 통한 제정(constitution)에 있으며 권징도 말씀에 따라서 덕을 세우는 일(建德, edificatio, edification)에 그 본질이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참 교회의 제 일 지표가 되는 말씀의 선포에 대한 칼빈의 입장을 고찰함으로써 이 시대 한국교회가 바람직하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주제는 궁극적으로 교회의 지표 전체에 대한 핵심적인 논의가 될 것이다.

2. 설교, 교회와 참 목회자의 지표(指標)

지상의 가시적 교회는 오류가 없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즉 영화가 아니라 성화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굳이 오류를 범할 수 없다 라는 말이 교회에 해당하는 단면(單面)이 있다면 교회가 자체의 모든 지혜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¹⁾

1) *Christianae religionis institutio*, . . . , 1536. *Ioannis Calvinii opera selecta*(이하 OS로 표기),

자신의 대작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젊은 칼빈(the young Calvin)은 교회의 순수성의 지표를 설교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위의 사실을 지적한다. 그는 중세의 교회는 말씀을 전하지 않은 병어리였거나 아니면 왜곡된 말씀으로 치부한 값싼 노릇을 단지 수행했을 뿐이라고 비난한다. 중세 카톨릭 사제들은 자신들의 자질에 따라서 감당하는 일은 비록 말씀에 기초하지 않더라도 오류가 없다고 보았다.²⁾ 그리하여서 말씀보다 사제들의 사려와 분별즉 교회의 전통이 더욱 귀하게 여겨졌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다거나 말을 해도 자신의 말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이 마땅히 그들에게 떨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과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병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죽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여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과 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사 56:10~12).

예레미야는 위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속으로부터 나온 인생의 말을 중얼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들이 아니라고 단언한다(렘 6:13; 14:14). 에스겔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이 사육을 채우는 몽상가들이라고 질책하였다(겔 22:25~26, 28). 진정 교회를 해치는 자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속에 있거나 교회를 사칭하는 거짓 사도들과 거짓 목회자들이라고 주님께서 예언하였으며 사도들도 그렇게 전하였다(마 24:11, 24; 행 20:29~30; 살후 2:3~12; 딤펴전 4:1; 딤펴후 3:1~9; 4:3~4; 벧후 2:1~2).³⁾

edidit Petrus Barth, volumen I: *Scripta Calvini ab anno 1533 usque ad annum 1541 continens* (Mnchen: Chr. Kaiser Verlag, 1926), 244. 본서의 번역판. 『라틴어 직역 기독교 강요 1536판』, 문병호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9), 6.23. 이하 1536 Inst. 6.23(OS 1.244)로 표기.

2) 이러한 카톨릭의 입장은 칭의에 있어서는 합력적인 공로(meritum de congruo)가 성화에 있어서는 합당한 공로(meritum de condign)가 작용한다는 Facientibus quod in se est Deus non denegat gratiam. 원리에 의해서 설명된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자질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에게 마땅한 은혜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인간의 선행에 따른 공로가 구원의 전 과정에서 중심적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Cf.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 . . , 1559, 2.2.6 (CO 2.190~191), 2.3.10(CO 2.220~221).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 Ford Lewis Battle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s. 20~21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이하 Inst. 권.장.절순으로 표기. 이하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는 CO로 표기.

3) 1536 Inst. 6.24(OS 1.244~245).

칼빈은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 교회의 두 표지를 순수한 말씀의 선포와 합당한 성례의 거행으로 명백하게 제시하였다.⁴⁾ 그런데 칼빈의 성례 신학에 의하면 성례의 표징(signum)이 의미(significatio)로서 실재함은 성령으로 작용하는 말씀으로 말미암는다.⁵⁾ 그러므로 교회의 표지는 공히 말씀의 선포에 귀일(歸一)된다고 할 수 있다. 교회의 직분자로서 목회자는 이러한 교회의 제 일 표지를 수행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일꾼이라고 할 것이다.

오직 나는 목회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즉시 판단하지 않도록 그들 자신들 가운데서 선택이 고려되기를 원한다. 전적으로 그들의 전체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으로, 전체 지혜는 그 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전체 구변(口辯)은 선포로 제한해서 고려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이로부터 벗어난다면 우리는 그들을 깨닫는데 명청하고 굽똥 사람들, 말을 웅얼거리는 사람들, 모든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직분을 그것이 선지자든, 감독이든, 교사든, 심지어 더한 무엇이라도 버린 사람들이라고 여긴다. 나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자신의 뜻으로 해석하는 전체 목회자 무리를 말하고 있다. 그들은 단지 바보가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목회자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을 털어서 내버리고 고삐가 풀린 자유에 스스로 빠져들어 간다. 마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의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수 1:7) 여호수아는 목회자가 아니었다는 듯이!⁶⁾

3. 개혁주의 설교자 칼빈

칼빈은 말씀의 교사(doctor)요, 해석자(interpres)요, 수호자(custos)였다. 말씀의 해석자로서 칼빈은 말씀을 구절대로 주석하기에 일생을 헌신했다. 말씀의 교사로서 칼빈은 말씀을 선포하여 성도들이 계시의 진리를 고백하기에 이르도록 가르치기를 힘썼다. 그리고 말씀의 수호자로서 칼빈은 참 신학을 수립하고 변호하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의에 합한 바가 되도록 감화를 끼쳤다. 이러한 칼빈의 직무는 그의 신학의 성격을 결정지었다.

4) 1536 *Inst.* Potentissimo illustrissimo monarchae . . . , 14 (OS 1.31).

5) Cf. *Inst.* 4.1.10 (CO 2.753-754): Ubi enim cunque Dei verbum sincere praedicari atque audiri, ubi sacramenta ex Christi instituto administrati videmus, illic aliquam esse Dei ecclesiam nullo modo ambigendum est.

6) 1536 *Inst.* 6.24(OS 1.245-246).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칼빈의 신학은 교훈적이며 고백적이며 변증적이었다. 교훈적이라 함은 성경의 진리가 그 속에 녹아있음이고, 고백적이라 함은 그것이 성경의 진리를 믿음으로 수납하는 감화(persuasio)와 감동(affectus)의 기록이라는 점이고, 변증적이라 함은 참 신학(theologia vera)에 대한 진정한 항변이 그 속에 채워져 있음이다. 칼빈은 설교를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 예술과 같이 여겼다. 그는 에베소서 설교에서 설교의 필연성을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복음이 설교되고 우리가 함께 가르침 받기 위해서 모일 때 이것은 인간이 고안한 정책이거나 질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간의 환상이거나 발명품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수립한 포고(布告)이며 어떤 경우이든 우리가 거역하려고 함이 합당치 않은 영구적인 법(une loi permanente)이다.⁷⁾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므로 말씀과 들음 사이의 전달의 도구로서의 설교자와 그의 사역으로서 설교의 존재는 필연적이다. 종교 개혁은 예배의 개혁이었다. 이전의 보여지는 예배(cultus visus)가 아니라 들려지는 예배(cultus auditus)가 추구되었다. 중세의 교회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우상을 보거나 만지면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들은 무식한 사람들을 위한 책으로서 우상이 필수적이라고 여겼다.⁸⁾ 그러나 종교 개혁은 가르치는 교회(ecclesia docens), 선포하는 교회(ecclesia praedicans)를 강조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측면에서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서로 차별이 없었다.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측면에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두 제사장들이었다.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고백되었다. 오직 그 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음이 진리로서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차별 없이 듣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다만 그러하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설교자라는 도구로 사용하심이 부각되었다. 설교자의 직분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바대로 회중에게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의 사역으로 여겨졌다. 그리하여서 친히 자신의 입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설교가 예배의 중심으로 여겨졌다.⁹⁾ 하나님의 대언자인 목사의

7) John Calvin, *Sermons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tr. Arthur Golding (London, 1577), rev. tr. Leslie Rawlinson and S. M. Houghton (Edinburgh: Banner of Truth, 1973), Eph. 3:1-6 (CO 51.442). 이하 설교는 Serm. 성경 장.절로 표기.

8) *Inst.* 1.11.5(CO 2.78).

9) 이와 같은 성경 이해에 기반하여 칼빈은 설교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성례적인 임재라고 본다. Cf. Ronald S. Wallace, *Calvin's Doctrine of the Word and Sacrament* (Edinburgh: Oliver and Boyd, 1953), 84-85; John H. Leith, *Calvin's Doctrine of the Proclamation of the Word and*

설교는 참 교회의 표지로서 인식되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감화된 심령에 친히 말씀하심, 즉 성령으로 영감된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감화된 심령에 친히 말씀됨이 설교로서 그리고 설교자는 그 도구로서 여겨졌다.¹⁰⁾ 이러한 참 교회의 표지로부터 성도의 표지(notae fidelium)가 도출된다. 진정한 성도의 가치는 그저 형식적 예배에 참석하고 가시적 윤리적 행위로 공로를 쌓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참 음성을 듣는 심령의 감화와 고백에 있음이 강조되었다.¹¹⁾

개혁교회는 설교가 말씀의 선포로서 말씀의 권능을 갖는 것으로 믿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 도구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심을 설교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는 하나님이 자신의 음성을 인간을 통해서 들려 주시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에 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셔서 인간의 언어에 자신을 맞추셨는데, 그 맞추심(accommodatio)의 정수가 설교에 나타난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찾았듯이,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성도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 선포된 설교(externa praedicatio)는 가시적 교회가 서 있는 유일한 기초이며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유일한 고리(vinculum)가 된다.¹²⁾ 설교는 스스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심이다.¹³⁾ 설교가 계시 자체는 아니다. 설교는 그 자체로 계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다. 계시는 스스로 계시하기 때문이다. 설교는 계시의 드러냄이 아니라 다만 그 드러냄을 증거할 뿐이다. 설교는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거하는 것이다.

칼빈은 모범적인 설교자였다. 그는 설교 이론가는 아니었다. 그러나 일생 계속된 강단에서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 시 본문을 어떻게 나눌 것이며, 어떻게 주해할 것이며, 어떻게

Its Significance for Today, in Timothy George, ed., *John Calvin & the Church: A Prism of Reform*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0), 211~212.

10) 성령의 권위(auctoritas)는 그 저자(auctor)가 하나님이라는 사실로부터 나온다; 이 사실은 성령의 은밀한 증거(arcanum testimonium)에 의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백성들에게만 확정된다 (*Inst.* 1.7.1~5, CO 2.56~61).

11) Cf. Wilhelm Neuser, Calvin's Teaching on the notae fidelium: An Unnoticed Part of the Institutio 4.1.8, tr. Mark S. Burrows, in *Probing the Reformed Tradition: Historical Studies in Honor of Edward A. Dowey, Jr.*, ed. Elsie Anne McKee and Brian G. Armstrong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89), 90~91.

12) *Inst.* 4.1.5 (CO 2.750~751).

13)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원형계시(revelatio archetypa), 그 말씀의 계시를 모형계시(revelatio ectypa)라고 구분해서 고찰했다. Cf. Abraham Kuyper, *Principles of Sacred Theology*, tr. J. Hendrik De Vries (Grand Rapids: Eerdmans, 1980), 275~299;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ume 1: Prolegomena*, ed. John Bolt, tr. John Vriend (Grand Rapids: Baker, 2003), 209 ff.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형을 보여주었다. 또한 설교의 횟수와 본문 선정에 대한 개혁 교회의 효시(嚆矢)를 제시했다. 나의 심장을 신실하게 그리고 즉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Cor meum tibi offero Domine sincere et prompte) 라는 그의 헌신은 생의 마지막까지 계속된 그의 설교에서 극치에 이른다.

칼빈의 설교 사역은 제 1차 제네바의 체류(1536~1538) 이후 약 삼 년에 걸친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망명 생활(1538~1541) 동안에 본격화되었다. 이후 다시 제네바에 돌아와서 죽을 때까지(1541~1564) 칼빈은 일 년에 평균 200회 설교하였으며 200회 강연하였다.¹⁴⁾ 그는 주일에 두 번 설교를 하였으며 격주로 매일 설교하였다. 그의 설교는 한 시간 이상 계속되었으며 원고나 메모가 없이 행해졌다. 그는 가장 위대한 강해 설교자였다. 그의 설교는 방대한 분량에 이르는데 특히 신명기 설교는 200편, 에스겔 설교는 174편, 사도행전 설교는 189편에 이른다. 그는 1549년에서부터 1564년 까지 시편,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미가, 스바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다니엘, 에스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율기, 신명기, 이사야,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공관복음(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창세기, 사사기, 사무엘 상과 하, 열왕기 상과 하를 설교했다. 이들 중에 구약은 주중 아침에, 신약은 주일 오전과 오후에 설교되었다. 간혹 시편이 주일 오후에 설교되었다. 칼빈의 설교는 그의 생전과 사후 오래지 않아서 영어, 독일어, 불어, 화란어 등으로 번역되었다.¹⁵⁾ 오늘날 한국에서도 현대 영어로 번역된 거의 대부분의 설교들이 번역되어 출판되었다.¹⁶⁾

칼빈의 설교는 그 문체와 방식에 있어서 일생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¹⁷⁾ 칼빈의 설교는 그의 글에서와 같이 문체의 간결성(brevitas)과 유용성(facilitas)이 돋보인다. 칼빈은 헬라어와 히브리어 성경으로부터 그의 설교 본문을 정하여 읽은 후, 언제나 간단한 개요와 함께 시작하였다. 종종 본문의 주제를 먼저 개괄하고 한 구절씩 강론하는

14) *Opera Calvinii* 가 칼빈의 모든 작품을 망라하고 있지는 않다. 이 작품집은 칼빈의 설교 874편을 실고 있는데 이는 그의 전체 설교의 일부에 불과하다. 스위스 제네바 대학의 종교 개혁 연구소를 중심으로 20세기 중반으로부터 시작된 칼빈 설교의 새로운 편집(*Supplementa Calviniana*)이 완성되면 670편의 설교가 더 출판될 것이다. 그러나 이 두 편집을 통한 1500여 편의 설교도 그의 전체 설교의 일부에 불과하다. 1549년부터 1560년 혹은 1561년까지 칼빈의 설교를 속기한 Denis Raguénier에 의해서 기록된 설교만도 무려 2042편에 이른다. W. de Greef, *The Writings of John Calvin: An Introductory Guide*, tr. Lyle D. Bierma (Grand Rapids: Baker, 1989), 110~117.

15) Cf. T. H. L. Parker, *Calvin's Preaching*(Edinburgh: T & T Clark, 1992), 59~64, 150~152; Steve J. Lawson, *The Expository Genius of John Calvin*(Orlando: Reformation Trust Publishers, 2007), 33.

16) 특히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 설교집은 완역되었으므로 우선 일독이 요구된다.

17) Dawn DeVries, Calvin's Preaching, in John Calvin, ed. Donald K. McKi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112.

경우도 있었으나 대체로 성경 본문을 충실히 따랐다. 칼빈은 많은 은유들과 비유들을 사용하였으나 대체로 성경에 직접적인 교훈이 되는 중요한 것들에 한정되었다. 칼빈이 원고 없이 설교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되는 주석과 강의를 통하여서 충분히 신학적으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설교는 본문에 대한 해석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칼빈은 본문의 의의와 가치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성도의 삶에 적용하는데 뛰어났다. 이를 그가 일찍이 법학을 공부하면서 익힌 텍스트 안에서의 텍스트 읽기와 콘텍스트 안에서의 텍스트 읽기 방식이 일정 영향을 미쳤다고 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¹⁸⁾ 다만 칼빈은 설교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없는 설교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비록 원고 없는 설교지만 그의 설교가 어느 누구의 설교보다 조직적이고 정치(精緻)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칼빈의 설교는 문체의 화려함과 수사의 다양함이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설교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고 유용한 것은 그가 본문의 문자적, 역사적, 신학적 의의를 정확히 간파하고 그것들을 충분히 총합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칼빈의 설교는 기본적으로 주석적이며 신학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매우 적용적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마땅히 설교가 그러해야 할 특성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칼빈이 행한 설교의 행태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될 것이며 그가 선포한 설교 자체를 분석하고 종합화해서 이해해야 한다. 그가 자주 표현하듯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학교(l'escole de Dieu) 혹은 그리스도의 학교(l'escole de Christ)에서 배울 바를 찾아야 한다.¹⁹⁾ 이는 그의 설교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vox Dei)이 반향(反響)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는 소위 두 음성 이론으로써 우리는 성경의 축자적(verbatim) 문자적(litteratim) 영감에 기반한 칼빈 설교학의 정수를 파악할 수 있다.²⁰⁾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는 칼빈의 설교에 나타난 신학적 교의들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²¹⁾

18) Cf. 출저 Byung-Ho Moon, *Christ the Mediator of the Law: Calvin's Christological Understanding of the Law as the Rule of Living and Life-Giving* (Milton Keynes, UK: Paternoster, 2006), 28-38.

19) Parker, *Calvin's Preaching*, 25-27.

20) Cf. John H. Gerstner, Calvin's Two-Voice Theory of Preaching, *Reformed Review* 13(1959), 15-26.

21) 칼빈의 설교를 신학 주제로 접근한 글은 많지 않다. Richard Stauffer 교수의 다음 글은 드문 예에 속한다. 칼빈의 설교신학(신론), 박건택 편역, [칼빈의 설교학] (서울: 나비, 1990), 85-117.

4. 말씀과 설교

칼빈에게 과연 과연 설교학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대체로 회의적일 것이다. 오늘날 설교학에서 기본적으로 운위(云謂)되는 제 종류의 설교의 특징들이나 전달 방법론이 그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는다. 그는 특정한 설교론이나 설교학을 전개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개혁주의 설교학, 분명, *Sola Scriptura scripta*의 원리에 기반한 참 설교학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교사로서 사용하신²²⁾ 칼빈이 행한 설교의 의의와 가치를 두루 파악함으로써 그 본원적 의미가 추구될 것이다.²³⁾

종교개혁자들의 설교를 들은 회중들은 대체로 카톨릭의 영세를 받은 중세의 성도들이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무엇보다도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바로 가르치는 직분이 있는 것으로서 여겨졌다. 설교자는 교사가 되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교육해야 했다. 칼빈은 읊기를 설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강단에 오를 때 그것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몸을 도사리고 그 강단으로부터 물러선다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사가 되어야 하며 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제 자신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에게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²⁴⁾

오직 주님께서 교회의 유일하신 한 분 교사이시므로²⁵⁾ 설교자들은 마치 그 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전하듯이 설교를 해야 한다.²⁶⁾ 그러므로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일하신 지혜요 진리며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²⁷⁾ 영원하신 말씀이신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구원의 의를 다 이루시고 보좌 우편에 계셔서 자신의 영을 자신과 함께 자녀 된 백성에게 부어주신다. 오직 이 영을 받은 사람만이

22) Cf.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Volume 1: Prolegomena*, ed. John Bolt, tr. John Vriend (Grand Rapids: Baker, 2003), 178, 415, 583-585; Cornelius Van Til, *The Protestant Doctrine of Scripture, In Defense of the Faith*, vol. 1 (Ripon, CA: Den Dulk Christian Foundation, 1967), 115-121; Kenneth S. Kantzer, Calvin and the Holy Scriptures, in *Inspiration and Interpretation*, ed. John F. Walvoord (Grand Rapids: Eerdmans, 1957), 115-155.

23) 설교자로서 칼빈에 대해서, Leroy Nixon, *John Calvin, Expository Preacher* (Grand Rapids: Eerdmans, 1950), 29-45; Parker, *Calvin's Preaching*, 1-75; de Greef, *The Writings of John Calvin*, 110-117.

24) *Sermons of Maister Iohn Calvin upon the Booke of Job*, tr. Arthur Golding (London: George Bishop, 1574), facsimile repr. (Edinburgh: Banner of Truth, 1993), 26:4 (CO 34.424).

25) *Inst.* 4.8.1 (CO 2.846-847).

26) *Inst.* 4.8.2 (CO 2.847).

27) *Inst.* 4.8.5 (CO 2.848-849).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게 된다. 그러므로 먼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마 17:5) 라는 음성을 새겨야 한다. 그리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벧전 4:11) 라는 전언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경의 학교, 성령의 학교,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먼저 배워야 한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먼저 자신이 그 말씀에 감화되어야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성경의 성령 영감성을 설교하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저는 성경을 설명할 때마다 항상 다음을 저의 원칙으로 삼습니다. 저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제가 제시한 가르침으로 유익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그러한 감동을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저는 저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위하여 덕을 세우는데 실패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한 불경스러운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²⁸⁾

설교의 감화는 저자를 감동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바로 그 성령께서 성도들을 심령을 조명시키고 감화시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에 있다. 설교는 설교자의 주관적 사변이나 체험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말씀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동일한 진리가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유기적으로 영감되어 기록되었듯이, 동일한 진리가 다양한 설교자들에 의해서 선포되어 성도들에게 유기적으로 감화된다. 그러므로 설교 가운데 이미 존재하는 진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내린다. 진리의 양식이 만나와 같이 내린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라는 구절을 주석하면서 칼빈은 성경 기록자의 메시지와 설교자의 메시지가 다르지 않음과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양자가 공히 같은 진리로 작용함을 강조한다. 복음 설교 가운데 성령이 작용하여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칼빈은 분명히 천명한다.²⁹⁾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모두 자신의 것으로 삼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역설한다.

28) *Sermons of M. John Calvin on the Epistles of S. Paule to Timothie and Titus*, tr. L(aurence). T(omson) (London: George Bishop, 1579; facsimile repr. Edinburgh: Banner of Truth, 1983), 2 Tim. 3:16 (CO 54.287). 특별히 성경의 영감성과 설교에 대해서, Parker, *Calvin's Preaching*, 8~16 참조.

29) *Comm. Heb. 4:12*(CO 55.50). 주석 표기는 전체적으로 *Comm. 성경 장.절로 표기*. 이하 구약주석은 *The Commentaries of John Calvin*, 46 vols., Calvin Translation Society Edition(Grand Rapids: Eerdmans, 1948~1950)을 사용(vols.1~15). 그리고 신약 주석은 John Calvin, *New Testament Commentaries*, ed., D. W. Torrance and T. F. Torrance(Grand Rapids: Eerdmans, 1960~1972)를 사용.

선택된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한다면, 말씀은 지극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진정한 자기 지식에 깨어져서 겸손하게 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도망치게 한다. 말씀이 그들의 심령의 깊은 곳으로 스며들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³⁰⁾

설교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의 은혜를 선포함에 그 궁극적이 목적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을 위하여 여전히 중보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신다. 설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이 그 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매체(medium)이다. 목회자들이 열쇠들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마 18:18; 요 20:22~23) 오직 복음 설교와 관계해서이다. 칼빈은 이 사실을 기독교 강요 초판에서부터 줄곧 역설했다.

결론적으로, 열쇠들의 권한은 단순히 복음의 선포를 의미한다. 사람들과 관련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사역자들의 권한에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권한을 사람들이 아니라 그 분께서 그들을 말씀의 사역자들로 삼으신 바 그 말씀에 주셨기 때문이다.³¹⁾

사역자의 권한(potestas ministeris)은 성도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그분의 중보 사역을 위하여 일꾼으로 사용됨에 있다.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를 선포해야 하며 그 자리로 성도들을 인도하도록 가르치고 증거해야 한다. 설교는 기복적인 의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설교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음과 그 다 이루신 의가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선포해야 한다. 칼빈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중보를 자신의 설교의 중심 메시지로 삼았다.

5. 설교의 핵심 : 중보자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과 여전히 중보하심

칼빈의 작품은 동시에 함께 읽혀져야 한다. 그는 한 작품에서 모든 것을 말하고자 하지 않았다. 많은 부분 기독교 강요는 상세한 설명을 주석에 미루고 있으며, 주석은 설교에서 종합된다. 기독교 강요가 성도들의 기본 가르침을 적시하고 있다면 주석은 말씀에 따른 주해적 설명이며, 설교는 이러한 주해의 적용을 함의하는 것이었다.³²⁾

30) Comm. Heb. 4:12 (CO 55.49).

31) 1536 *Inst.* 5.29(OS 1.186).

32) Cf. David F. Wright, Calvin's Commentary and Sermons on Acts 1~7: A Comparison, in *John Calvin*

무엇보다도 칼빈의 설교에 나타나는 가장 현저한 특징은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것의 성도의 구원에의 적용을 역동적으로 다룸에 있다.³³⁾ 기독교 강요에서 이들 주제들은(loci) 가르침의 순서(ordo docendi)에 따라서 별개로 다루어진다. 주석에서는 그 해석이 본문에 머문다. 그러나 설교에서는 대체로 교리는 적용을 동반한다.³⁴⁾ 칼빈의 설교는 기독교론과 구원론의 일치를 매우 인상적으로 보여준다.³⁵⁾

칼빈은 시편 89편 설교에서 율법의 위대하고 완전한 가르침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영생에 이르는 길(chemin)이라고 묘사한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의 길이 됨이 먼저 지적된다. 그리고 이러한 율법을 완성한 그리스도의 공로가 성도들에게 전가됨을 언급함으로써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기독교론과 구원론적으로 동시에 선포한다.³⁶⁾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삶이 설교된다.³⁷⁾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작용하는 율법의 은혜적 측면을 지적함으로써 설교가 끝난다.³⁸⁾

칼빈은 설교에서 교회의 하나임(unity)과 연속성(continuity)을 주장하는데, 중보자 그리스도의 한 분이심과 영원하심의 속성에서 찾는다.³⁹⁾ 교회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 속한 아브라함의 씨앗들이라는 측면에서 설명된다.⁴⁰⁾ 성도의 교제도 그리스도의 양성적

and the Interpretation of Scripture, Calvin Studies XI, ed. David Foxgrover (Grand Rapids: CRC Product Services, 2006), 290~306.

33) 기독교 강요 2권과 3권에 나타나는 기독교론과 구원론의 역동성을 *Christus praesens extra nos et in nobis*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여 다룬 다음 작품을 참조. Dawn DeVries, *Jesus Christ in the Preaching of Calvin and Schleiermacher*(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1996), 96. 또한 그리스도의 인격에 있어서의 unity in unio를 성도의 구원과 연결시킨 다음 작품 참조. Stephen Edmondson, *Calvin's Christ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215~219.

34) 칼빈은 에베소 설교에서 교리에 261쪽, 실제 생활에 352 쪽을 할애한다. 이는 그의 설교의 강조점을 예시한다. *Calvin, Sermons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Publisher's Introduction, xv.

35) 이는 성경의 하나임(unity)에 기반한다. Parker, *Calvin's Preaching*, 93~107.

36) Serm. Ps. 89:31~39. *Supplementa Calviniana. Sermons indits*, ed. Erwin Mhlhaupt et al.(Neukirchen: Neukirchener Verlag, 1936~, 이후 SC), 7.65~67. 본 논고에 인용된 SC는 다음과 같으며 이후 다만 성경 장.절로만 표기된다. vol. 1, *Predigten ber das 2. Buch Samuelis*; vol. 3, *Sermons sur le Livre d'Isae chapitres 30~41*; vol. 5, *Sermons sur le Livre de Miche*; vol. 7, *Psalmenpredigten, Passions~, Oster~, und Pfingstpredigten*; vol. 8, *Sermons on the Acts of the Apostles Chapters 1~7*; vol. 11/1, *Sermons sur la Gense chapitres 1,1~11,4*; vol.11/2, *Sermons sur la Gense chapitres 11,5~20,7*.

37) Serm. Ps. 89:31~39 (SC 7.67~70).

38) Serm. Ps. 89:31~39 (SC 7.70~72).

39) Serm. Mic. 3:11~4:9 (SC 5.104~137).

40) Serm. Gen. 15:4~5 (SC 11/2.741~743); Ps. 147:18~20 (SC 7.11~15); John Calvin, *Sermons upon the Epistle of Saint Paul to the Galatians*, tr. Arthur Golding (London, 1574), repr. (Audubon, N. J.: Old Paths Publications, 1995), 3:18 (CO 50.529~534).

중보의 의의로써 다루어진다.⁴¹⁾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은, 그가 그의 지체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즉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의 중보하는 은혜에 기초시킨다.⁴²⁾ 심지어 구약을 설교하면서도 칼빈의 이러한 입장은 견지된다.

멜기세덱에 관한 설교에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왕직이 이미 율법이 수여되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한다.⁴³⁾ 그리고 승천 후에도 중보자의 인격으로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멜기세덱의 영원한 제사장직과 연관되어 설교한다.⁴⁴⁾ 칼빈은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의식들의 의미를 설명하면서도 드러낸다. 의식들은 일시적인 규례로 제정되었으나 그것들의 뜻은 의의는 영원하고 불변함이 강조된다.⁴⁵⁾ 그리스도는 의식들의 실체일 뿐만 아니라 완성이며,⁴⁶⁾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계속하는 한 우리는 율법에 규정된 의식들의 동일한 진리로 교훈을 받을 것이다.⁴⁷⁾ 생명을 살리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가 없다면, 성전과 성막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⁴⁸⁾

칼빈은 설교에서 중보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성도들을 위한 왕직과 제사장직을 계속 수행하고 계심을 강조한다.⁴⁹⁾ 그는 그리스도의 영을 완전의 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 순결의 영, 모든 의의 영, 진리의 영 등으로 부른다.⁵⁰⁾ 그리스도의 영의 독특한 성격은 경건한 사람들을 그의 의에 동참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들어 올려(*sursum corda*) 그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게 하며, 궁극적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완전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작용과 관련해서 현저하게 제시된다.⁵¹⁾

이렇듯이 칼빈은 자신의 설교들을 통하여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자신의 의를 지금 우리에게 중보하고 계심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 칼빈은 특히 그리스도의 중보를 그 실체에 있어서 셋으로 파악하고 있다. 화해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는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함으로써 우리의 인격과 행위를 모두 받으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으로서 자신을 계시한다. 가르침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는 율법

41) Serm. Acts 7:36 (SC 8.312-313); Eph. 1:21 (CO 51.336-338); Eph. 3:16 (CO 51.485-486).

42) Serm. Eph. 1:21-23 (CO 51.333-350, esp. 118-119, CO 51.343-344).

43) Serm. Gen. 14:18 (SC 11/2.705-706, 709-714).

44) Serm. Gen. 14:19 (SC 11/2.715-716). Cf. Comm. Heb. 5:6 (CO 55.60-61).

45) *Sermons of M. John Calvin upon the Fifth Booke of Moses called Deuteronomie*, tr. Arthur Golding (London: Henry Middleton, 1583), facsimile repr. (Edinburgh: Banner of Truth, 1993), Deut. 27:2-6 (9-13, CO 28.298-301).

46) Serm. Mic. 4:9 (SC 5.134-136).

47) Serm. Gal. 1:22 (CO 50.354); Gal. 2:4 (CO 50.365-367).

48) Serm. Ps. 48:9-15 (SC 7.58-59, 62-63); Acts 7:42-44 (SC 8.355-363); Acts 7:53 (SC 8.383); Gal. 4:9-10 (CO 50.603-607).

49) Serm. II Sam. 8:15 (SC 1.244-249).

50) Serm. Deut. 9:17 (CO 26.697-701); Eph. 1:1 (CO 51.251).

51) Serm. Eph. 3:14-19 (CO 51.485-502).

의 본래적인 의를 해석하고 계시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것의 실체와 진리를 알게 한다. 마지막으로 중재의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들어올린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중재를 통하여서 거듭난 사람들은 율법을 좇아 살도록 교훈과 권고를 받는다.⁵²⁾ 칼빈에게 있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의의 전가는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율법의 중보로 구원론적 의미를 획득한다.

칼빈은 그의 신학적 작품들과 성경 주해 작품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중보가 전체 역사에 미침을 주장한다.⁵³⁾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나눠주실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라. 이것은 너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니라. 주님께서 이를 행하심은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그 자신의 실체로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몸의 연합이 그 분으로부터 나오고(*la liaison du corps procede de luy*), 그 분께서 우리의 양식임을 깨닫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은혜와 은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우물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물을 길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가르쳐 준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분께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점점 더 강해지고 이러한 모든 은혜에 대한 믿음을 점점 더 확고하게 갖게 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불안전함과 연약함이 다 사라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영광을 즐거워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⁵⁴⁾

이와 같이 신구약 시대에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강조함으로써 칼빈은 이신칭의 원리의 구속사적 의미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52)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적 율법 중보에 관해서, Moon, *Christ the Mediator of the Law*, 98-103.

53) Cf. Comm. Gen. 18:13 (CO 23.254); Ex. 3:2 (CO 24.35-36); Isa. 19:20 (CO 36.344); Isa. 63:17 (CO 37.405); Matt. 1:23 (CO 45.69); Jn. 5:46 (CO 47.129); Jn. 16:23-24 (CO 47.367-369); Jn. 16:26 (CO 47.371); Heb. 8:5 (CO 55.99); Serm. Matt. 26:36-39 (CO 46.846); Matt. 26:67-27:10 (CO 46.886); Gal. 3:13-14 (CO 50.515, 518); Gal. 3:15-18 (CO 525-534).

54) Serm. Eph. 4:15-16 (CO 51.592).

6. 설교의 감화 :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로 말씀을 수납함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imputatio)를 설교함에 있어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위하심으로써 그의 영을 내려주셔서 행하시는 계속적인 중보를 강조한다.⁵⁵⁾ 칼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의 중보 사역의 완성으로 본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설교하면서, 칼빈은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자신의 전체 의무로부터 자신을 풀어 주었다고 말한다.⁵⁶⁾ 칼빈은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몸(corpus)이라고 부르고, 이를 그림자들(umbras)이었던 옛 제사들과 구별한다.⁵⁷⁾

그리스도의 고난을 설교하면서 칼빈은 그의 계속적인 중보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⁵⁸⁾ 칼빈은 그것을 단순하게 모범과 거울(exemple et miroir)로서만 보지 아니하고 그의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그의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룬다.⁵⁹⁾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에 관한 성찬 교리에 의지한다.⁶⁰⁾ 그는 그리스도의 산 제사가 가시적으로(visibile) 그러나 영적으로(spiritualiter) 드러졌다고 주석함으로써 성례의 의의를 간파한다.⁶¹⁾ 그리고 그 의의를 성찬을 행함으로써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가시적이 된 실체로 데려 간다고 설교함으로써 선포한다.⁶²⁾

그리스도의 승귀(昇貴)를 다룸에 있어서 칼빈은 그분의 영의 임재를 통한 그분의 의의 계속적인 전가를 특히 강조한다. 부활의 은총은 신자들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눠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으로 이해된다.⁶³⁾ 승천의 은혜는 신자들이 중재자 그리스도와 교체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⁶⁴⁾

55) 칼빈이 공관복음 전체를 연속해서 설교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CO 46, Notice Preliminaire, iii). 그러나 단지 복음서의 첫부분에 해당하는 45개의 설교만이 남아있다(Matt. 5:11, 12; Lk. 6:22-26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영화롭게 되심에 대한 설교는 *Congregation sur la Divinité de Jésus-Christ* (CO 47.465-484), *Sermons sur la Passion de Notre Seigneur Jésus-Christ* (CO 46.833-954), *Sermons de l'Ascension de Notre Seigneur Jésus-Christ* (CO 48.585-622)로서 남아있다.

56) Serm. Matt. 27:45-54 (CO 46.924).

57) Comm. Jn. 19: 30 (CO 47.419). Cf. Serm. Matt. 27:45-54 (CO 46.924-925).

58) Serm. Matt. 26:36-39 (CO 46.846); Matt. 26:40-50 (CO 46.858-860); Matt. 25:51-66 (CO 46.872); Matt. 26:67-27:10 (CO 46.886-888).

59) Serm. Matt. 26:36-39 (CO 46.843-844).

60) Serm. Matt. 26:36-39 (CO 46.845); Matt. 27:45-54 (CO 46.920); Matt. 27:55-60 (CO 46.935).

61) Comm. Matt 27:51 (CO 45.782); Lk. 24:47 (CO 45.818).

62) Serm. Matt. 27:45-54 (CO 46.920).

63) Serm. Matt. 28:1-10 (CO 46.952-954).

64) Serm. Acts 1:9-11 (CO 48.617-621).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서 만물을 통해서 가지적으로 존재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으로 우리와 교통하십니다. 우리가 그 분과 연합할 때, 그 분께서는 비록 높은 곳 하늘에 계시나, 우리의 영혼은 그 분의 몸의 실체에 의해서 양육됩니다. 이 일이 믿음의 능력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육체적으로만 내려오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⁶⁵⁾

나아가서 칼빈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unio mystica cum Christo)의 관점에서 다루고, 이를 그리스도의 육체적 임재에 대한 성찬 교리로 설명한다.⁶⁶⁾ 칼빈은 그리스도의 영을 그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정의한다.⁶⁷⁾ 성령의 오심에 대한 그리스도의 마지막 다락방 강화를 주석하면서, 우리의 중보자와 중재자로서 그리스도는 성령의 은혜를 아버지로부터 받는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인 이상 그는 그 은혜를 자신으로부터(a se ipso) 부여한다고 칼빈은 말한다.⁶⁸⁾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에 대한 다음 주석이 따르는데, 이는 그의 설교가 기초한 신학적 배경을 잘 나타낸다.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런 말씀들로부터 추론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열심이 계속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한다. 나는 성령이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quae facultatis nostrae sunt)만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오히려 성령은 우리가 해야 할 것(quid fieri oporteat)을 보여 주어서,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다른 곳에서 그 힘을 찾으도록 하신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인내를 권고하실 때, 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열심(marte et industria)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확신시키시는 자신에게 기도하게 하신다.⁶⁹⁾

1536년 기독교 강요에서 언급하듯이, 율법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다.⁷⁰⁾ 율법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역량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를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맞추신 의가 아니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맞추어 주신 의(iustitia

65) Serm. Acts 1:9-11 (CO 48.620). Cf. Comm. Acts 1:11 (CO 48.12-14).

66) Serm. Acts 2:1-4 (250-257, CO 48.629-636).

67) Comm. Acts 1:5 (CO 48.6-7). Cf. Comm. Jn. 14:20 (CO 47.331).

68) Comm. Jn. 14:16 (CO 47.329).

69) Comm. Jn. 15:9 (CO 47.342).

70) 1536 *Inst.* 1.28(OS 1.57).

accommodata)이다.⁷¹⁾ 이러한 그저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불완전한 행위도 기쁘게 받으시고 율법의 엄격한 요구를 완화해 주시는 하나님의 부성적인 관용(paterna indulgentia)으로부터 나온다.⁷²⁾ 이하 인용된 설교에서 칼빈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제한된 능력과 죄성에 맞추어 주셨는가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중보자로서의 현존을 동시에 다루면서 설명하고 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죽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이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이게 하심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을 그들의 능력에 맞추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나 우리에게 자신을 자신의 실체 가운데서(en son essence) 계시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분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맞추셨습니다(s'accommode).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신 그 분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의 수준까지 자신을 낮추어야만 하셨습니다……. 따라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야망이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치는 낮은 곳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하더라도, 그가 그렇게 하심이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하심이었음을 기억하도록 합시다.⁷³⁾

7. 결론 : 참 교회의 길

하나님께서서는 교회의 일꾼들은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엡 4:12).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신다(엡 4:15). 말씀의 선포는 교회의 표지의 핵심이 된다. 칼빈이 목사의 직분을 그리스도의 교리에 의하여 사람들을 가르쳐서 진정한 경건에 이르게 하고, 거룩한 성례들을 거행하며 올바른 권징을 지키고 시행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정수는 말씀 선포에 있다.⁷⁴⁾ 선포된 설교(externa praedicatio)는 가시적 교회가 서 있는 유일한 기초이며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유일한 고리(vinculum)가 된다.⁷⁵⁾

71) Cf. Sermon. Deut. 28:1 (CO 28.353); Job 10:16-17 (CO 33.496-499); Job 23:1-7 (CO 34.331-344).

72) Comm. Deut. 30:11-14 (CO 24.257-258). Cf. Sermon. Deut. 5:28-33 (CO 26.417).

73) Sermon. Deut. 5:4-7 (53, CO 26.248). 하나님의 맞추심(accommodatio)은 칼빈의 십계명 주석보다 설교에 더욱 생생하게 나타난다. Cf. Sermon. Deut. 5:4-7 (56, CO 26.251); Deut. 5:8-10 (69, CO 26.261); Deut. 5:8-10 (77, CO 26.267); Deut. 5:11 (83, CO 26.271); Deut. 5:16 (135, CO 26.310); Deut. 5:17 (153, CO 26.323); Deut. 5:17 (155, CO 26.324); Deut. 5:22 (241-242, CO 26.387); Deut. 5:23-27 (257, CO 26.397); Deut. 5:28-33 (285, CO 26.417).

74) Inst. 4.3.6 (CO 2.781).

75) Inst. 4.1.5 (CO 2.750-751).

교회의 권징도 성도들을 제어하고 유순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⁷⁶⁾

윌레스(Ronald S. Wallace)가 지적하듯이, 칼빈에게 있어서 설교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의 마음에 그의 규범을 세우는 수단이다.⁷⁷⁾ 위에서 우리는 칼빈이 자신의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의 하나임과 연속성에 기반하여 그분의 계속적 중보를 구속사적이며 구원론적으로 특징적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보았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낮추셔서 맞추어 주심이다. 그 맞추심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설교자로 사용하신다.

설교자의 설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서 육신이 되시는 은혜가 역사한다.⁷⁸⁾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들을 설교자들로 사용하심으로써 성도들을 겸손하게 하신다.⁷⁹⁾ 설교는 설교자의 현학적인 수준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내적인 감화를 일으킨다. 시편 119편을 설교하면서 칼빈은 설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간단하게 피력하고 있다.

저로서는 성령께서 여기에서 정해주신 양식과 순서에 따라서 나 자신을 적당하게 갖추어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텍스트의 명백하고 진실한 의미를 가능한 간결하게, 긴 권고를 덧붙임이 없이 쫓고자 스스로를 재촉합니다. 저는 단지 다윗의 말씀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게 자르고 채를 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그것들이 더욱 소화되기 쉬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매 설교마다 여덟 절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직 저 자신을 그 범위 내에 묶어 두고자 합니다. 이로써 어떤 무지한 사람이라도 제가 텍스트의 단순하고 순수한 실체를 공공연히 드러내서 명백하게 하려고 하는 외에는 아무 뜻도 없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⁸⁰⁾

설교자는 자신이 먼저 성령의 감화를 받지 않은 말씀으로 회중을 감화시킬 수 없다. 설교자는 자신이 가장 귀하게 받은 것을 성도들에게 선포해야 할 것이다. 설교는 개인적이거나 주관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감화 받은 설교자가 회중에게 전하여 그들의 유기적인 감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76) *Inst.* 4.12.1(CO 2.905).

77) Wallace, *Calvin's Doctrine of the Word and Sacrament*, 85.

78) Lester De Koster, *Light for the City: Calvin's Preaching, Source of Life and Liberty* (Grand Rapids: Eerdmans, 2004), 77.

79) *Inst.* 4.3.1.

80) *Serm. Ps.* 119:5. De Koster, *Light for the City: Calvin's Preaching, Source of Life and Liberty*, 81에서 재인용.

설교자는 배우고 확신에 거한 바대로 설교해야 하는 소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므로 교회에서 “복음의 사역(ministerium evangelii)” 보다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⁸¹⁾

한국 교회는 현재 강단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말을 듣는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설교자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으로 받은 것을 성도들에게 전하지 않고 오히려 받지 않은 것을 성도들에게 맞추어서, 이성적으로, 세속적으로 전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초대 교회의 부흥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골 2:28~32; 시 16:8~11; 110:1) 인용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요 14~16장) 기억하여 전하였을 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더하여 나타났다(행 2:14~47).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는 한 참 진도와 그 열매로서 부흥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증언한다.

칼빈의 설교에는 그리스도의 구원 공로가 성도의 삶에 실제로 전가됨이 줄곧 강조되었다. 특히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통하여서 그 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성도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칼빈은 설교 가운데 성례신학적인 용어들을 자주 사용하였다.⁸²⁾ 설교자는 다 이루신 의를 전가해 주시며 지금도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증거해야 한다. 주님께서서는 교사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맞추어서 가르쳐 주신다. 주님께서서는 화목케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구원 과정 전체를 주장하신다. 오직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의 의를 전가 받아서 영생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재자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마 11:28)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는 자리에 기꺼이(libenter) 선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로서 마땅한 기업을 누린다(롬 8:17). 이제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도를 향하여 칼빈이 설교한 핵심 메시지였다.⁸³⁾ 개혁주의 설교자는 이러한 메시지를 피를 토하듯이 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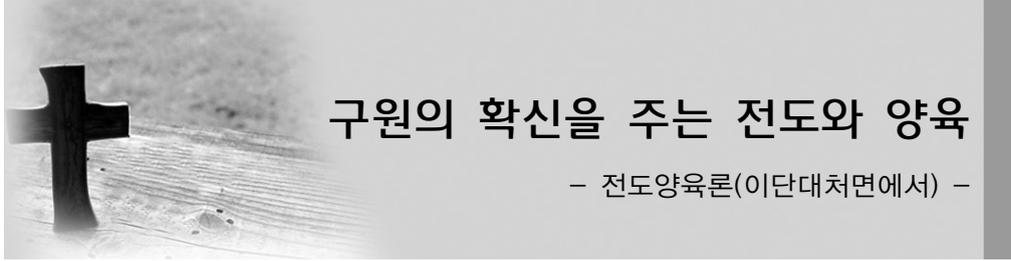
Soli Deo Gloria in Aeternum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히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81) *Inst.* 4.3.3 (CO 2.779).

82) 칼빈의 설교에 있어서 기독교론적이며 성례신학적 의의를 논한 다음 글을 참조하라. DeVries, Calvin's Preaching, 106~124.

83) Cf. 기독교론 중심적 설교에 관해서, Sydney Greidanus,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Grand Rapids: Eerdmans, 1999), 127~151; *Sola Scriptura: Problems and Principles in Preaching Historical Texts*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1970), 140~146; Bryan Chapell, *Christ-Centered Preaching: Redeeming the Expository Sermon* (Grand Rapids: Baker, 1994), 17~32, 263~286.



구원의 확신을 주는 전도와 양육

- 전도양육론(이단대처면에서) -

진용식 목사

상록교회 담임, 총회이단대책위 연구분과장

최근 한국 교회는 이단집단들의 극열한 활동에 따라서 이단 문제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국내에 자칭 재림주가 40여명이 있고, 사이비 이단에 미혹된 신도들이 200여 만 명이 된다. 이들은 불신자들에게 포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교회의 기성 신자들을 목표로 포교를 하고 있다. 이단 집단의 신도들이 정통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공통적인 방법은 성경공부이다.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을 보면 초신자나 불신자가 아니라 정통교회의 10년 이상 된 성도들이 쉽게 미혹된다는 것이다. 정통교회 기성 교인들이 이단들이 운영하는 성경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쉽게 미혹되어 버린다. 정통교회 기성 신자들이 이단에 쉽게 미혹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단에서 개종한 신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도 잘하고 직분을 받기도 하였으나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미혹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이단에 미혹되기 쉽다. 그러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잘 미혹되지 않는다. 한국 교회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전도와 양육이다.

왜, 한국 교회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성도들이 많은가?

그간에 한국 교회는 복음을 제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한 후,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보다는 교회에 나오도록 권유하고 인도하는 방식의 전도를 많이 해오고 있다. 예를 들면, 총동원 전도주일 같은 경우이다.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훈련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도록 독려하는 식의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도를 받아 교회에 출석하게 된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복음에 대하여

교육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다보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또 하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육 내용이 삶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는 것이다. 삶에 관한 훈련과 교육은 많으나 교리에 관한 교육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성도들이 구원론을 공부해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구원론에 대하여 교육을 받지 못하면, 주일설교나 삶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려면 어떠한 전도와 양육을 해야 할 것인가?

구원상담(개인전도)을 통하여 전도와 양육을 해야 한다.

구원상담이란 피상담자에게 복음을 제시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구원상담은 피상담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는 것을 목표로 말씀을 증거하는 개인전도라고도 한다. 구원상담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개인전도’가 있고, 이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기성 신자들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기성 신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는 ‘복음증거’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단에 미혹된 이단 신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고 개종하게 하는 ‘이단 상담’도 있다. 유, 초등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린이 구원상담’이다. 이러한 구원상담은 어떤 종류의 신도들 이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교회에서 효과적으로 구원상담을 실시할 경우,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성도들을 전도자로 훈련시켜야 한다.

전도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말한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하는 일이 전도이다. 불신자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예배에 출석하도록 하고, 예수를 믿도록 안내해 주는 일은 전도가 아니고 인도이다. 즉 구원상담을 하는 것이 전도인 것이다. 구원상담은 목회자가 직접 구원상담을 해야 하지만 성도들을 훈련시켜 상담자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도들이 상담자가 되어 구원상담을 하게 되면, 성도들에 의하여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된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얻고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되어야 든든한 일꾼이 되고 이단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성도들을 구원상담자가 되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구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된다. 구원 상담자들을 통하여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된다. 초대교회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단상담자를 훈련시켜야 한다.

이단상담이란 이단에 미혹된 신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는 상담이다. 즉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일이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약 5:1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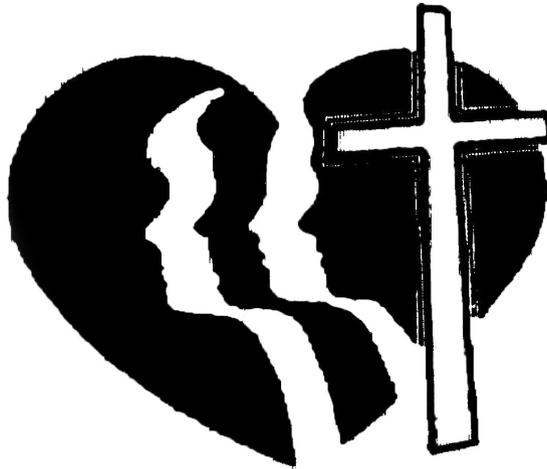
이단집단의 신도들이 정통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법은 성경공부를 통해서이다. 성경공부를 시키면 이단교리에 세뇌되어 이단에 미혹된다. 반대로 이단에 빠진 신도들에게 성경공부를 시키면 이단의 신도가 정통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통일교’, ‘신천지’, ‘정명석 집단’ 등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단상담을 받고 돌아온다. 이단에 빠진 신도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단상담은 약 40강의의 내용을 강의하면 돌아오게 된다. 이단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이 40강의의 내용을 훈련 받으면 된다. 이단상담을 할 수 있도록 평신도들을 훈련시켜 상담자가 되게 하면, 교회 성장과 부흥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면 교회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이단대처가 된다. 공격이 가장 좋은 방어가 되는 것처럼 이단에 빠진 신도들을 회심시키는 일은 가장 효과적인 이단 대처가 되는 것이다.

구원의 확신을 주는 구원 상담문

구원을 확신을 위하여 복음을 제시하는 ‘구원 상담문’은 여러 가지가 있다. C.C.C에서 사용하고 있는 “4영리”가 있고, 전도폭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리에화”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여러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원 상담문’들이 있다. 선교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원 상담문’ 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이 잘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 사용하기에 너무 단순하고 약한 것 같아서 필자는 목회사역을 통하여 체험한 내용으로 ‘구원 상담문’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어떤 내용의 구원 상담문을 사용하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면 된다. 필자가 만들어 사용하는 구원 상담문은 다음과 같다.

구원의 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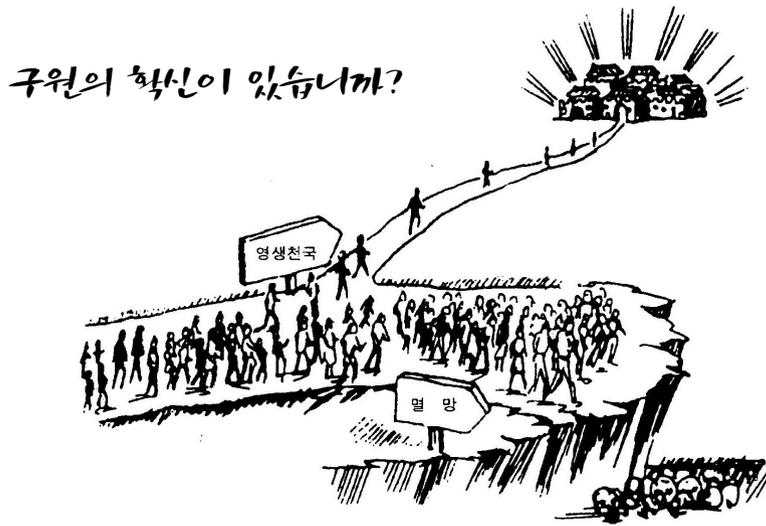
(구원상담문)



진용식 목사

도입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고후 13:5)

1. 모든 사람이 죄인 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3:23)



시 51:3~5¹⁾

시 90:8²⁾

렘 7:9³⁾

잠 24:9⁴⁾

마 5:28⁵⁾

“우리는 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
- 1) [시] 51:3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
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 2) [시] 90:8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 3) [렘] 7:9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 4) [잠] 24:9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 5) [마] 5: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 죄인은 심판 받고 지옥에 간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 9:27)



※참고
롬 6:23⁶⁾
약 1:15⁷⁾

6) [롬]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7) [약] 1: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3.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참고

롬 3:20⁸⁾

갈 2:16⁹⁾

엡 2:8¹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갈 2:16 상)

-
- 8) [롬] 3: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 9) [갈] 2: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 10) [엡] 2: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4.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 1:12)



-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을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1) 과거의 죄

지금까지 지었던 죄 또는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2) 미래의 죄

앞으로의 생애에서 죄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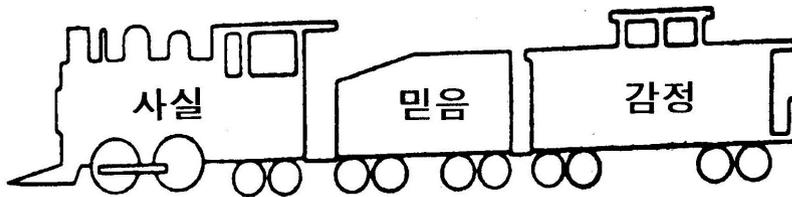
3) 성화

변화되지 못한 자신을 생각할 때,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5.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 17:3)

1)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 간과하심을 믿으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롬 3:25)



간과하심이란?

* 과거의 모든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셨다는 뜻이다.



기억지 않으심

*히 10:17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 43:25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2) 도말하셨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뽀뽀한 구름 같이, 네 죄를 안개 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사 44:22)

질은 안개와 같던

당신의 모든 죄를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모두 도말하셨습니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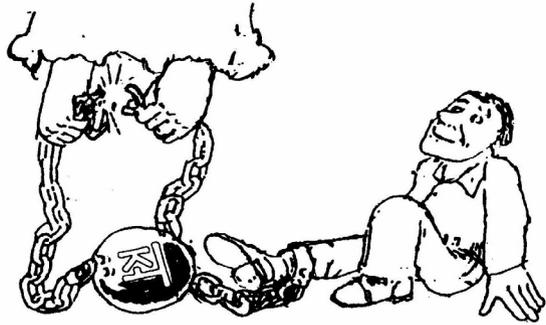
돌아온다는 것은

용서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3)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롬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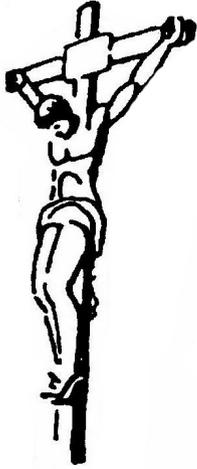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 8:2)

*어디에서 해방되었습니까? ☞ 율법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롬 8:3)

(1) 십자가에서 우리의 일생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 십자가에 정함.

일생의 모든 죄

“...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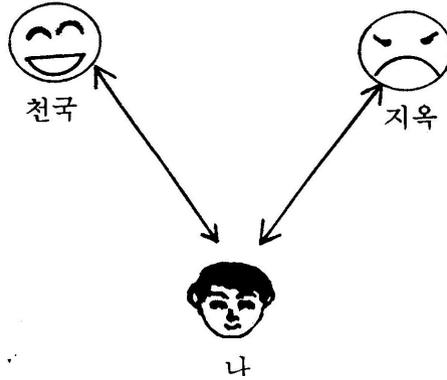
(2) 십자가에서 죄를 다 청산하심으로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이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 의인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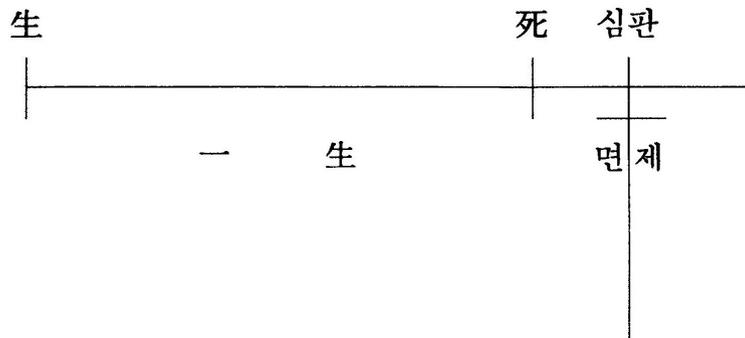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 3:24)



둘째 : 확실히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셋째 : 심판이 면제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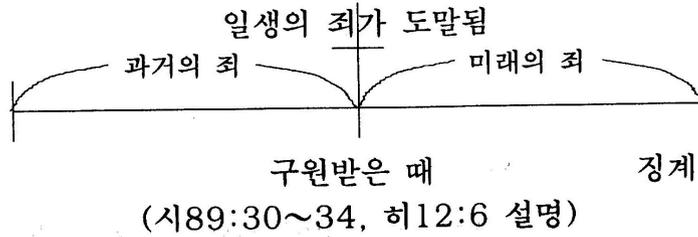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요 3:18 상)

*참고 요 5:24, 히 9:27~28

넷째 :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계 1:5 하)



주님을 영접한 당신은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었으며,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3)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 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당신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당신의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다음 몇 가지를 비롯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계 3:20).

“...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②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골 1:14)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③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④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요 5:24)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0)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7)

당신의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기도를
드리겠습니까?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살전 5:18)

할렐루야!



총회전도정책포럼

발행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전도부

발행처 국내전도국

주 소 서울 강남구 대치2동 1007-3

전 화 02-559-5672 팩 스 02-567-5655

발행일 2010. 8. 5

www.gapck.org/ 국내전도국

2010 총회전도정책포럼

질 / 문 / 지

궁금하신 내용을 적어서 진행요원에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